

트럼프 대통령 3선 노리나

“나라 구하면 뭘해도 합법”
트럼프 나폴레옹 황제 발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법적 지위를 원하는 듯한 발언을 해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는다(He who saves his Country does not violate any law)”라는 멘트를 남겼다가 논란이 일자 제거했다.

하지만 또다른 SNS인 X 계정에선 이 글을 그대로 놔뒀다.

이 멘트는 프랑스의 공화정 대통령과 황제에 올랐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의 어록에 포함돼 있다.

나폴레옹의 말을 빌려 전세계의 여러 근현대 독재자들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즐겨 사용했다.

민주당은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정명령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이같은 발언을 통해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를 꿈꾸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프랑스를 방문해 나폴레옹 기념관 및 묘소를 둘러보고 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문장 그대로 “미국을 구하는 일을 했다면 위법 요인이 제거된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세 번째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5대 대통령(2017년1월-2021년1월)을 지내고 이번 47대 대통령직을 수행중이기 때문에, 연방헌법 상 3연임 금지 규정에 걸

려 2028년 11월 제4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유세에서 “우리는 당선되더라도 4년을 더 재임해야 한다”며 3연임이 가능할 것처럼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상 어떠한 꿈을 쓰더라도 3연임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두번 연속 연임하든 징검다리 연임

이든 임기 4년의 대통령직을 최대 두 번까지만 가능하다.

1930년대와 1940년대 4선을 기록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1951년 연방수정헌법 제22조가 제정돼 “어떤 국민도 3회 이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1932년 선거부터 내리 4번 당선된 유일한 인물이다.

네번째 임기 시작 3개월 만인 1945년 4월 사망하지 않았다면 1949년 1월까지 임기가 보장됐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3선 임기 도전을 위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앤디 오글리스(공화, 테네시) 연방하원 의원이 3선 제한 헌법 수정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아직 심의단계로, 연방하원의회를 통과하면 헌법 수정을 위한 정식 법안이 양원의회 정족수 2/3로 통과해야 한다.

김욱재 기자

▶▶2면 ‘트럼프 3선’으로 이어집니다

내일 또 눈 3인치 안팎

북미 대륙 절반 이상이 북극 진동 여파로 또한번 폭설과 한파를 예고했다.

노스다코타, 몬태나 등은 마이너스 화씨 40도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지역도 19일과 20일에 걸쳐 화씨 10도대까지 기온이 내려가고, 애초 최대 8인치의 눈을 예상했지만, 제트기류 변화 탓에 예보가 수시로 변화며 17일 오후 4시 최대 3인치가 예보됐다.

북극발 한파는 지구의 대기권 상층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며 부는 강한 ‘제트기류’가 구불구불 흘러가기 때문이다.

시간대별로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적설량 예보 또한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워싱턴지역은 북극진동의 가장자리로, 애팔래치아 산맥 방향으로 국지적인 전선이 형성돼, 서부지역일수록 적설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김윤미 기자

트랜스젠더 정책 북VA 교육청 조사

연방교육부가 북버지니아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정책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감사대상은 페어팩스, 알링턴, 라우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와 알렉산드리아 시티 교육청이다.

이 교육청 관할지역은 최근 20년새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던 곳으로, 공화당의 반동성에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성정체성 정책을 지지해왔다.

연방교육부는 최근 이들 교육청이 트랜스젠더 학생 및 교직원의 성정체성을 고려한 화장실과 락커 사용을 허용하는 교육조례 및 지침으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줄리 알렌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 대변인은 “트랜스젠더 등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모든 학생은 학교 시설과 행사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에,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는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븐 밀러 자문이 설립한 보수단체 ‘퍼스트 리걸’은 북버지니아 지역 교육청이 연방교육법 제9조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고발조치한 바 있다.

김윤미 기자

▶▶2면 ‘트랜스젠더’로 이어집니다



전용차 타고 나스카 대회 트랙을 도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플로리다 데이тона 비치에서 열린 유명 자동차 경주 대회인 ‘데이тона 500’을 관람했다. 이날 대통령 부부는 전용 차량인 ‘더 비스트’를 타고 트랙을 두 바퀴 돌았다.

[로이터]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팔팔지팡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VA- 센터빌/아난데일/폴스처치
페어팩스/뉴포트뉴스
MD- 게이트스버그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3/3~3/7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IRS 납세자 정보 마스크에게 넘어가나

IRS 전산시스템 현대화 명분

연방정부효율성부(DOGE)이 연방국세청(IRS)의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 업무 협약 각서(memorandum)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DOGE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120일간 IRS에 파견해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접근하고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IRS가 운영하는 통합정보검색시스템 IDRS(Integrated Data Retrieval System)에는 미국의 모든 납세자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 시스템에 접근하면 모든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와 이에 부속되는 거래기록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 DOGE는 IDRS가 1960년대의 컴퓨



터 언어로 개발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DOGE가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IRS 내부에선 DOGE 관계자가 시스템 업데이트를 명분삼아 미국의 모든 납세자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텍 오도널 IRS 청장 대행은 아직 협약 각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백악관과

DOGE의 압박을 견디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IRS 내부에서는 IDRS의 납세자 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만큼, DOGE의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과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IRS는 현재 세금 보고 시즌에도 불구하고 수천여명의 공무원이 해고대상에 오르면서 뒤숭숭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RS를 동원해 자신의 정적을 다루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이같은 발언을 부인했다. IRS 세금보고 시즌은 4월15일 종료되며, 모두 1억5천만명 이상의 납세자 정보를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미청구 자산 5개월분 2억4200만불 국고 귀속

메릴랜드의 미청구자산(2024년7월-11월) 2억4200만달러가 주인을 찾지 못해 주정부 재정에 귀속됐다. 이 기간 청구돼 반환된 자산은 5300만달러로, 전체 미청구자산의 22%에 불과했다.

이번 2월 초 현재 기준으로 국고에 귀속되지 않은 미청구자산은 1억9900만달러로, 청구 가능 국민은

150만명에 이른다. 미청구자산 정보를 보려면 해당 웹사이트(<https://interactive2.marylandtaxes.gov/UnclaimedStatus/>)에 접속해 이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메릴랜드 의회는 최근 미청구자산 자동환급 법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해, 계속 신청에 의한 환급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정책 항의 시위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인사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1천여명이 참여한 시위는 17일 오

전 11시에 시작돼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이날 시위는 '노 킹스 데이' 시위로 명명됐다. '프레지던트 데이'에는 왕이 없다"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다.

VA 스피드카메라 규제법안 좌초 위기

버지니아주의 스피드 카메라 규제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정부가 벌금 수익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법안을 상정한 홀리 세이볼드 하원의원(민주, 페어팩스)은 "카메라 단속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운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본말이 전도됐다"고 밝혔다.

하원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의하면, 지역정부는 카메라 설치 전 이해

관계가 걸린 단체와 주민의 자문 위원회 승인과 공청회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카메라 단속구간 1천 피트 이내에 최소 두 개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경고 표지판 중 하나는 운전자가 쉽게 단속 카메라 존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불빛이 깜박이는 피드백 표지판이어야 한다.

이 법안은 하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소위원회 통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설문참여 유혹, 개인 금융정보 등 훔쳐가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회원들이 '무료 아이스크림 기계' 제공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당국에서는 최근 코스트코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광고는 코스트코 배너까지 도용, 이메일을 보낸 뒤 설문 조사를 완료하면 닌자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유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메일은 설문조사 참여를 유도해 소비자들의 개인 금융정보

를 훔치거나 컴퓨터에 접근하려는 사기수법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당국은 해당 이메일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사기 이메일은 @handtoneed.net 도메인을 사용했는데, 이는 코스트코의 공식 이메일 주소가 아니다.

또한, 응답 기한을 강조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은 공식 웹사이트가 아닌

의심스러운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당국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현재 홈페이지에 사기이메일, 문자, SNS 게시물 '무료TV제공', '단독 경품 이벤트' 등 가짜 프로모션 '설문조사 참여 후 선물 지급' 광고 '기프트 카드 교환' 관련 사기 등 현재 유포 중인 사기수법 목록을 게재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

>>1면 '트랜스젠더'에서 이어집니다

1972년 제정된 연방교육법 제9조는 '미국의 어떤 국민도 성별을 이유로 연방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과 성별에 따른 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이 없는 학습 환경을 가질 학생의 권리를 명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 교육청의 성적 체성에 기반하는 정책이 제9조를 위반해 정상적인 학생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가 여성부 운동경기에 출전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90)에 서명했다.

버지니아 고교 스포츠 리그 등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이어 후속조치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교육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성적체성 정책을 바꿨지만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속력이 없었다.

김윤미 기자

>>1면 '트럼프 3선'에서 이어집니다

또한 50개의 주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주 대표가 모여 소집된 헌법개정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된 수정안은 각 주의 주의회를 통해 4분의 3 이상의 주가 비준하거나, 4분의 3 이상의 주 대표가 참여하는 헌법회의에서 비준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나라를 구하려 해도 헌법을 개정하고 3선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옥재 기자

워싱턴 날씨 (°F)

	19일(수) 29~20		22일(토) 45~27	
	20일(목) 31~22		23일(일) 50~31	
2월 18일(화) 36~18	21일(금) 40~21		24일(월) 53~35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1-495 가가운1층 콘도 킹스팩 \$1,600 방1, 화1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4,100 방4, 화4 1/2, 차고2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3,900 방4, 화4 1/2, 차고2
---	---	---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You 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트럼프 행정부 항공안전 인력 해고

워싱턴 레이건 공항 근처 충돌참사가 발생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백 명의 관제사 등 항공안전 공무원을 해고했다.

데이비드 스페로 항공안전노동조합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연방항공국(FAA)에서 일하던 항공 안전 담당 직원 수백여 명이 이메일을 통해 해고 소식을 전달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입부 1년 미만의 수습 공무원들로, 이들 중에는 관제사와 레이더 및 항법 보조 장비의 유지보수 담당자 등 필수 직군도 다수 포함돼 있다.

스페로 위원장은 이번 해고가 전격

적으로 이뤄졌으며 직원들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지역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최근 워싱턴DC 포도맥강 상공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오히려 안전 인력 충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인력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 직후 FAA의 항공 안전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비상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항공안전 자문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해고했다.

이 위원회는 1988년 팬암 103기 추락

사고 이후 연방법에 의해 창설된 기관으로, 항공안전 점검 임무를 지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각종 위원회 위원을 해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FAA가 일론 머스크 DOGE 책임자가 소유한 스페이스X의 우주로켓 발사 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자진사퇴 프로그램 신청자가 기대치에 못미치자 수습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량 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들어 연방정부 수습공무원 해고 건수는 모두 4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월남전 참전유공자회 신년하례식

월남전 참전유공자회 워싱턴지회(회장 조창석)가 신년하례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조 회장은 “올해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놓은 회장단과 함께 새로운 회장단이 선출되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다”며 “회원들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 상호 영향을

주는 월참 전우들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합심하여 서로 배려하고 아끼며 모이는데 힘써, 전우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각 사회단체와 교류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찾고 전우들의 자부심과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윤미 기자



노리스터 강풍, 최고시속 78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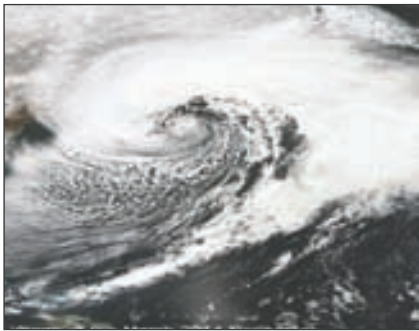
워싱턴 지역 6만가구 이상 정전 피해

워싱턴 지역에 겨울 폭풍 ‘노리스터’(nor’easter)가 강타해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 16일 노리스터로 동부지역 10개 주와 워싱턴 DC 등의 주민 2백만여 명이 정전피해를 입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메릴랜드 캐토티 산 근처에서 최고 시속 76마일의 강풍이 일었으며 평균적으로 60마일 안팎의 강풍이 곳곳을 휩쓸었다. 이로 인해 쓰러진 나무들이 주택과 차량을 덮쳐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네 채의 주택이 쓰러진 나무로 큰 피해를 입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등 도미니언 전력



회사 관할 지역의 경우 4만5천가구, 수도권 메릴랜드와 워싱턴DC는 각각 2만 가구가 7천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메릴랜드의 베이 브릿지는 강풍으로 인해 2시간 이상 폐쇄되기도 했다. 연방해양 대기청(NOAA)는 주로 9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노리스터 활동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노리스터는 북동부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겨울 폭풍 중 제트기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 현상이다. 노리스터는 마치 여름철 허리케인 처럼 나선형의 돌풍으로, 발생지역과 반경이 북동부 대서양 연안지역에 국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지난 1988년, 2011년 2015년, 2019년, 2023년 대규모 노리스터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혔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노리스터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NOAA는 노리스터 발생빈도 및 강도와 기후변화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지역 주택가격 오름세 지속

워싱턴 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버지니아지역 부동산중개인연합회(NVAR)과 리스팅 기관 브라이트 MLS에 따르면, 지난 1월 북버지니아 지역 주

택 중간매매가격은 68만5천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5.4% 상승했다.

페어팩스 카운티가 70만달러로 7%, 페어팩스시티가 93만5천달러로 41.6%, 폴스처치 시티가 74만9999달러로 3.5%,

알렉산드리아 시티가 66만달러로 18.1% 상승했다. 클로징 주택매매량도 833채로 전년동월 대비 8% 증가했다. 이중 페어팩스 카운티가 560채로 7.3% 상승했다. 주택 매매 계약후 클로징이 끝나지 않은 잠정주택 판매량은 969채로 9.6% 줄었다.

김옥채 기자

한인여성 대상 우울증·유방암·알츠하이머 연구

온라인 참여, 설문 응답 보상

텍사스 대학-오스틴 간호학과에서 한인 중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우울증, 유방암, 알츠하이머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정지유 교수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중년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우울감을 개선하기 위한 웹/앱 기반 생활 습관 신체 활동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참여기준은 40세에서 65세의 한국계 미국 거주 여성으로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한국인이며, 신체활동이 어려운 장애가 없고, 영어 또는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하며, 이메일과 인터넷에 접속과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최근 2주 안에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이다. 참여 자격을 갖추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면 두 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된다. 참여자가 어느 그룹에 배정되었는지에 따라 교육 정보 사용 및 온라인 포럼 및 1:1 코칭/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참여자들은 3번에 걸쳐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며, 이 연구의 참여 기간은 총 12개월이다.

각 시점(시점 전, 6개월 후 및 12개월 후)

설문지 작성이 완료되면 연구 참여에 대해 시점 당, 50달러(최대 3회) 최대 150달러의 기프트카드가 수여되며, 스마트시계 Fitbit도 함께 제공된다.

프로그램의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시간 및 장소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된다. 문의는 이메일(wpapp.help@austin.utexas.edu) 혹은 전화(512-232-2121), 링크(https://wpapp.research.nursing.utexas.edu/)를 통해 할 수 있다.

연구팀은 최근 미국에 거주하며 유방암을 진단받은 아시아 여성들이 대상이며, 기술 기반의 정보 및 코칭/지지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메일(cai.help@austin.utexas.edu), 전화(512-232-2142), 링크(https://cai.research.nursing.utexas.edu/) 문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알츠하이머 가족 간병인 아시아계 미국인 중년 여성을 위한 기술 기반 정보 및 코칭/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메일(tacad.help@austin.utexas.edu), 전화(512-232-2323), 링크(https://tacad.research.nursing.utexas.edu/)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윤미 기자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듀노



DUO NY 212-915-7115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한인 은행 순익 또 급감 ... 4억불도 무너져

15개 은행 3억8488만불
전년 대비 16.9%나 줄어
2022년엔 6억불에 육박
은행권 “고금리·경기”여파

전국 한인 은행의 전체 순이익 규모가 감소세를 이어가며 3억 달러대까지 내려앉았다. 한인 은행권은 2022년만 해도 6억 달러 가까운 순이익을 올린 바 있다.

본지가 전국 15개 한인 은행이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에 제출한 2024년 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은행들은 지난해 총 3억8000만 달러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의 4억6000만 달러대에 비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또 은행들의 대출과 예금은 증가했지만, 자산은 선제적 부실대출 관리 등으로 소폭 줄었다.

▶순이익

전국 한인 은행 15곳의 2024년 연간 누적 순이익 규모는 총 3억8488만 달러로 전년의 4억6315만 달러에서 16.9%가 줄었다. <표 참조>

특히 2023년 누적 순이익이 1069만 달러였던 워싱턴주의 유니뱅크는 지난해

전국 한인은행 2024년 실적 (단위: \$1,000)

지역	은행명	자산			대출			예금			누적 순손익		
		2024년	2023년	증감(%)	2024년	2023년	증감(%)	2024년	2023년	증감(%)	2024년	2023년	증감(%)
캘리포니아	뱅크오브호프	17,048,804	19,126,316	-10.9	13,632,764	13,857,027	-1.6	14,348,619	14,781,338	-2.9	115,282	146,941	-21.5
	한미은행	7,637,519	7,534,939	1.4	6,259,955	6,194,447	1.1	6,447,162	6,288,066	2.5	70,915	89,843	-21.1
	PCB뱅크	3,062,929	2,789,471	9.8	2,635,680	2,328,607	13.2	2,623,609	2,358,909	11.2	26,607	31,420	-15.3
	오피뱅크	2,365,822	2,147,667	10.2	1,961,433	1,767,640	11.0	2,028,748	1,809,210	12.1	21,799	24,615	-11.4
	CBB뱅크	1,815,551	1,760,375	3.1	1,438,012	1,422,267	1.1	1,481,403	1,453,916	1.9	23,063	29,453	-21.7
	US메트로뱅크	1,395,867	1,225,106	13.9	1,176,386	1,021,080	15.2	1,228,307	1,064,435	15.4	8,435	12,016	-29.8
워싱턴	유니뱅크	522,138	609,906	-14.4	395,768	490,636	-19.3	439,876	514,493	-14.5	-30,988	-10,694	-
	메트로시티뱅크	3,578,664	3,482,906	2.7	3,160,710	3,167,520	-0.2	2,761,567	2,754,348	0.3	64,717	51,889	24.7
	퍼스트IC뱅크	1,192,160	1,155,557	3.2	995,999	919,814	8.3	975,568	954,187	2.2	24,744	24,598	0.6
조지아	프로미스원뱅크	811,450	715,272	13.4	584,399	548,990	6.4	738,666	606,700	21.8	11,123	12,268	-9.3
	우리아메리카	3,804,511	3,391,054	12.2	2,951,437	2,647,965	11.5	3,263,101	2,862,765	14.0	27,242	28,237	-3.5
	신한아메리카	1,740,361	1,751,524	-0.6	1,481,897	1,467,371	1.0	1,496,157	1,454,778	2.8	2,241	467	379.9
뉴욕	뉴뱅크	659,023	645,114	2.2	381,066	377,434	1.0	562,409	556,160	1.1	8,389	10,462	-19.8
	뉴밀레니엄뱅크	913,713	783,832	16.6	782,597	688,336	13.7	795,177	675,993	17.6	8,043	8,234	-2.3
뉴저지	하나은행USA	578,769	430,106	34.6	402,180	286,733	40.3	458,592	311,350	47.3	3,271	3,396	-3.7

전국 한인은행 15곳의 2024년 연간 누적 순이익 규모는 총 3억8488만 달러로 전년의 4억6315만 달러에서 16.9%가 줄었다. <표 참조>

자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적자 규모가 3099만 달러로 전년보다 더 커졌다. 은행 측은 2023년 상업용자산 사건에 따른 손실 및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 1000만 달러가 넘는 법인세 비용 등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본기준은 유지 중이어서 안전하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남가주 한인 은행 6곳의 순이익은 2억6610만 달러였다. 이는 전체 순이익의 69.1%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년의 69.5%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부 지역 한인 은행들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대체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으나, 동부 지역 한인 은행 가운데 메트로시티뱅크(애틀랜타), 퍼스트IC뱅크(애틀랜타), 신한아메리카(뉴욕) 등 3곳은 순이익이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자산·대출·예금

전국 한인 은행 15곳의 총자산 규모는 471억2728만 달러로 2023년 대비 0.9% 감소했다. 남가주 한인 은행 6곳의 자산은 333억2649만 달러로, 전체 자산 비중의 70.7%를 차지했다.

유니뱅크를 포함한 서부 지역 한인은행 7곳의 자산은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반면 동부 지역 8개 은행의 자산

은 전년 대비 7.5% 증가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전국 한인 은행의 대출 규모는 382억4028만 달러로 2023년과 비교해 2.8% 늘었다. 서부의 PCB뱅크, 오피뱅크, US메트로뱅크, 동부의 우리아메리카(뉴욕), 뉴밀레니엄뱅크(뉴저지), 하나은행(뉴저지)은 대출 상승 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해 눈에 띄었다.

예금고는 396억4896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특히 프로미스원뱅크(애틀랜타)와 하나은행의 예금이 각각 21.8%와 47.3%씩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한인 한의사가 성추행 혐의로 체포되고 있다. <FOX5 캡처>

다고 진술했다.

척 앳킨슨 도라빌 경찰서장은 “이번

를 보였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고금리의 지속과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많은 한인 은행의 순이익이 감소했다”며 “일부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전국 한인 은행의 자산 규모도 소폭 줄었지만 대출과 예금 규모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최근 물가 상승 폭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장에선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아졌다”며 “4분기까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놔다.

유현식 기자

70대 한인 한의사 성추행 혐의 체포

조지아주 도라빌서 발생

경찰 “다른 피해자 신고를”

조지아주 도라빌에서 70대 한인 한의사가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

FOX5 등 지역 언론은 ‘킴스 한의원(Kim’s Acupuncture·일백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무곤(70)씨가 지난 11일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도라빌은 애틀랜타에서 15마일 가량 떨어진 곳이다.

도라빌 경찰은 지난해 4월 첫 번째 피해 신고가 있었으며, 12월에 또 다른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

혔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김씨 한의원을 10년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첫 신고자는 김씨가 치료중 불필요하게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했고, 12월 신고자는 김씨가 전과 달리 “반듯이 누우라”고 한 후 주행했



한인 한의사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고 있다. <FOX5 캡처>

다고 진술했다.

척 앳킨슨 도라빌 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에게는 5건의 성추행 혐의와 1건의 가장 성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일단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신고(770-455-1000)를 당부했다.

김영남 기자

“타운 미래 모습 담았습니다”

LA한인타운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 발전 방향까지 제시한 책이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더구나 건축 전문가들이 만든 책이라 공간의 기능적 분석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건축설계 업체인 앤드모어파트너스(대표 선 모·강해기·이하 앤드모어)가 최근 펴낸 ‘LA한인타운 리서치 북’은 다양한 자료와 사진을 담고 있어 현실성을 더 한다. 앤드모어 측은 베드타운으로 바뀌는 LA한인타운을 보행자 친화 도시이자 비즈니스 성장 도시로 바꾸는 데 필요한 나침의 가이드라인을 담았다고 한다.

책에는 한인타운 주요 건물의 미래 디자인을 비롯해 주요 거리별 특성 분석과 더불어 주거, 주차, 녹지 현황, 거리별 특징을 고려한 도시 개발 방안 등의 정보가 망라돼 있다.

선 모 앤드모어 공동대표는 “한인타운의 미래를 위한 도시 계획안이 모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강해기 공동대표도 “건축가로서 한인타운이 가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안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앤드모어는 이 책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한인타운을 만드는 것이 미래 발전에 필요한 주요 요소라고 소개



앤드모어 파트너스의 선 모(왼쪽), 강해기 공동 대표가 LA한인타운 리서치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했다. 리틀도쿄와 리틀이탈리아의 보행자 접근성은 60%가 넘지만, 한인타운의 평균 보행자 접근성은 10% 남짓

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강 공동대표는 “한인타운은 걸어 다니기에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로 인해 한인타운 방문자들의 체류 시간도 한정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 설계와 안전이 보장된다면 인근 상권도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인타운이 LA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 공동대표는 앤드모어가 책에서 제시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이다. 그는 “이 책을 시작으로 한인타운 발전에 대한 의견이 모이고 토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한인들의 집단지성이 모이면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뜻을 같이하려는 한인들이 꽤 많아졌다”고 밝혔다.

글·사진 = 김경준 기자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티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트럼프, 경쟁사 때려 준다... 신난 미국차와 반도체

미국업체 국내 생산 투자 확대
“한국차에 관세 매기라” 부추켜

글로벌 경쟁에 밀려 주춤했던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 관세’에 올라타 다시 뛰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약진해온 한국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라고 부추기는가 하면, 휘청이던 ‘반도체 공룡’ 인텔도 기사회생하는 분위기다.

‘관세가 싫으면 미국에서 만들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빅3 중 하나인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1일 뉴욕에서 열린 올프리스치 주회 자동차 산업 콘퍼런스에서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150만~200만 대의 차를 미국으로 들여오는 한국·일본·유럽 자동차 기업에 무제한적인 자유를 줄 것”이라고 했다.

포드는 한국차에 관세 부과를 줄기 차게 주장해왔다. 지난 7일 실적발표에서도 팔리 CEO는 “도요타와 현대차·기아는 관세 없이 연간 수십만 대의 차를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기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해 국내 판매 차량의 58.3%(99만5477대)를 한국에서 들여왔다. 포드는 멕시코의 완성차 공장 2곳에서 연간 36만 대(지난해 기준)를 들여와 팔기 때문에, 멕시코 관세가 부과되면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으로 관세의 화살을 돌린 것”이라고 해석한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1조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 면제’를 받아내려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대응이 전무한 상태라서다.

이항구 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일각에선 포드가 트럼프 관세 전환을

때린 거로 오해하는데, 그들이 뭇 하러 한국 기업 편을 들겠냐”라며 “한국산에 관세를 매기는 게 그들에겐 기회”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포드는 판매량 3위(206만5161대), 현대차·기아는 4위(170만8293대)였다. 현대차·기아는 2020년 120만8374대(5위)에서 4년 만에 41.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포드 판매량은 6.9%만 증가했고 순위도 1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포드와 현대차·기아는 국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세단을 놓고 경쟁 중”이라며 “국내 완성차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에 멕시코·캐나다 관세에

품목별 예외를 인정해달라거나, 한국산에 고율 관세를 매겨달라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업체들은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트럼프의 요구에도 맞추고 있다.

GM의 메리 바라 CEO는 지난 11일 “멕시코·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추가 비용을 30~50%를 줄일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관세가 장기화하면 완성차·부품 생산을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원한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매각하기 위해 대상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 전기차와 경쟁이

심해지자 우주산업과 미국에 집중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으로 CEO까지 물러난 인텔도 재기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지난 14일 뉴욕증시에서 인텔은 장중 24달러를 넘어서며 지난 11일 20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 4거래일 동안에만 총 22% 이상 급등했다.

인텔 주가에 힘을 실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에 이은 부통령의 발언이었다.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 인공지능(AI) 정상회의에서 J.D.벤스 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미국에 구축할 것”이라며 “미국이 설계하고 제조한 반도체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 반도체 주요 제조국을 향해 “반도체산업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해왔다.

한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더 늘리면 비용 부담이 크기에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박해리 기자

“이제는 ‘한인’임이 자랑스러운 시대”

커피미즈베이글(CMB)은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이다.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성 간의 만남을 주선한다. 한인 세 자매 강수현, 강아름, 강다운 씨가 2014년 창업했다. 공통의 지인을 통해서 만남을 주선하는 시스템이 호평을 받았고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주목을 끌어 바로 다음 해 샤크 탱크에 출연했다.

프로그램에서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3000만 달러에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세 창업자는 기업가치평가가 너무 낮다며 단호하게 거절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9년 동안 세 자매가 호언장담한 대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 현재 1억5000만 달러가 넘는 기업가치를 갖고 60여 명



스타트업 투자 유치 리얼리티 쇼 샤크 탱크에 출연해 화제가 된 강아름(왼쪽), 강다운 자매

의 직원이 함께하는 기업이 됐다. 강다운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샤크 탱크의 출연과 이후 회사를 성장시켜 온 이야기를 들어봤다. -샤크 탱크에 나가게 된 계기는. “샤크 탱크 프로듀서가 CMB 이용자여서 우리에게 출연 제의를 했다. 사실 샤크 탱크는 초반에만 해도 CMB

같은 기술기업보다는 소상공인이 출연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처음에는 제의를 거절했다. 하지만 투자업계에서 전설과 같은 존재인 케빈 오리어나 마크 큐반에게 투자를 받는 것은 특별한 일일 거라고 생각해 출연하게 됐다.” -출연했을 때 긴장은 안 했는지.

“너무 무서웠다. 사실 10년 이상 CMB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칭을 정말 많이 했고 2000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처럼 긴장한 적이 없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프로그램에서 말을 잘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컸다.”

-투자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끌어낸 이유는. “진정성 있고 독특한 이야기다. 진

솔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 감동을 줄 수 있다. 소수계 여성으로서 어떻게 자라왔고 창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 항상 투자자의 반응이 좋다. 소수계라는 건 다수 사이에서 된다는 의미다. 두각을 나타내기도 쉽다. 흔히 소수계가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장점이다.”

-3000만 달러의 인수제안을 거절했을 때 주변 반응은.

“주변의 모두가 우리의 비전을 믿고 있었기에 부정적 의견은 없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는 욕심이 지나친다는 등의 악플도 있었다.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한인 여성이라는 점이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는지.

“투자자들은 한인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도움이 됐다.세 자

매가 창업했다는 점은 다른 데이팅 서비스와 우리는 차별화 해주는 지점이다. 데이팅 서비스는 여성 이용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세 명의 여성이 창업했다는 것 때문에 CMB를 선택하는 이용자들도 많다.”

-창업을 꿈꾸는 한인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처음 하와이에 유학 갔을 때 영어를 못해서 굉장한 기가 죽어 있었다. 소수계로서 자라다 보면 자신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감도 부족해질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한인임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시대다. 한인으로 태어난 게 커다란 행운이라고 느낀다.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야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기업은 리더의 역량만큼만 성장할 수 있고 역량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본다.”

조원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라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SIC MEDICINE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1억5천500만 동합보험

5 in 1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Life Insurance 생명보험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Aetna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즈니스 융자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버지니아 (리치몬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매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트럼프 일가 돈벌이 전례 없는 수준

WSJ “기업들 제공 8000만불”
멜라니아 다큐 판권 4000만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소송합의금, 영화 판권료 등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고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기산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기업들이 트럼프 가족 구성원과 트럼프 도서관(추진 중) 측에 제공한 액수가 약 8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프라임 비디오’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면서 라이선스 비용으로 40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다. 이 중 멜라니아 여사의 몫

이 70% 이상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소송을 통해 받는 돈도 엄청난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일으킨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페이스북과 엑스 등이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최근 합의가 이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엑스로부터 1000만 달러, 메타(페이스북 운영사)로부터 2500만 달러(이 중 2200만 달러는 트럼프도서관 기금)를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던 미국 지상파 ABC 방송이 소송 종결을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에 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일가의 또 다른 수익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밀고 있는 가상화폐와도 연결돼 있다. 트럼프 장남 도널드 주니어와 차남 에릭이 관여하는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디지털 토큰(블록체인 기반 자산) 판매를 통해 3억 달러 이상을 모았다. 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트럼프 밈 코인(인터넷·SNS의 밈과 농담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가상자산)은 33억 달러 상당에 달한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트럼프 일가의 돈벌이 속도와 규모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윤리 관련 감시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비난을 받았던 집권 1기 때를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현예슬 기자

머스크, 13번째 아이 아빠되나

인플루언서 20대 여성
“5개월 전 출산” 주장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54)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13번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20대 여성이 등장했다. 머스크는 지금까지 3명의 여성 사이에서 12명의 자녀를 뒀다.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26)는 14일 머스크 소유 X에 “5개월 전, 새로운 아기를 세상에 맞이했다”며 “머스크가 아버지”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타블로이드 미디어가 이를 보도하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공개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는 우리 아이가 정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할 것”이라며 “미디어가 우리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보도를 삼가기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Alealacta Est(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라틴어 문구를 남겼다. 뉴욕포스트의 15일 클레어 인터뷰에 따르면 둘은 X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연결됐다. 그는 “머스크는 정말 재미있고, 똑똑했고, 현실적”이라며 둘은 2년 전 처음 만났다고 공개했다. 이후 임신한 뒤 “비밀로 유지하라는 말을 들었다고”고 말했다.

클레어는 “하지만 일부 머스크 팬들이 머스크의 아기를 낳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고,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했다.

현재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비공개

상태다. 클레어 측은 이날 뉴욕포스트에 아기의 이름과 성별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는 현재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또 다른 아이를 갖는 것이 머스크의 ‘부업’이냐”는 한 누리꾼의 댓글에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달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머스크는 평소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붕괴에 대한 우려를 자주 표명해왔다. 사람들에게 다 출산을 권유하는 그에게 총 11명의 자녀가 있다. 전 부인 저스틴 윌슨과의 사이에 5명의 아들을 뒀으며, 그라임스와 사이엔 엑스를 포함해 3명의 자녀가 있다. 뉴럴링크의 임원 시본 질리스와는 쌍둥이 스트라이더와 아주르를 포함해 3명의 자녀를 뒀다.

머스크는 지난 13일 미국을 찾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동에서 그의 4세 쌍둥이 아들 스트라이더, 딸 아주르 등 어린 세 자녀를 외교부대에 데루시키기도 했다. 앞서 머스크의 5세 아들 엑스(X)는 지난 11일 아빠와 함께 백악관 집무실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조문규 기자

미국 ‘대만독립 반대’ 삭제…일본도 ‘국적 표기’ 허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반부터 친(親)대만 정책을 통한 대중 견제 행보에 나서고 있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했고, 미 해군 군함은 트럼프 취임 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트럼프의 적극적인 대만 지지 의사에 한국과 일본도 공조하는 모양새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의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란 제목의 문서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서든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며 “적절한 국제기구의 가입을 포함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대만이 미 국방부의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 등에 협력하고 있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미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서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한 행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만 독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견제구를 날렸다. 지난 10~12일 미 해군 구축함 존슨함과 해양 측량선 보디치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미 군함이 대만해협을 지난 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는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의 마·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지지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공동 발표문에서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힘과 강압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마·일을 중심으로 대만 지지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난 15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한·마·일 외교통상은 공동성명에 “적절한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법무성은 5월부터 호적의 국적란에 대만 출신자의 경우 국적을 중국이 아닌 대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히논게이자이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승호 기자

미국 LNG·옥수수 수입 확대…작년부터 트럼프 대비한 일본

작년 대미 수입액 9.5% 늘려
무역흑자액 선제적으로 줄여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 7위 국가인 일본이 지난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큰 폭으로 늘리며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미국산 에너지 등 수입 확대를 통해 대미 흑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7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685억 달러(약 98조80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대일 적자(716억 달러·약 103조2000억원)보다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미

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511억 달러에서 660억 달러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 재무성에서 발표하는 대미 흑자 규모 역시 2023년 8조7200억 엔(약 82조9000억원)에서 2024년 8조6500억 엔(약 82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런 흐름은 일본의 대미 수입액(9.5%)이 대미 수출액(5%)보다 더 크게 늘어난 결과다.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액 중 자동차 비중은 27.7%였다. 자동차 부품까지 포함하면 33.4%로 올라간다. 수출액 증가율은 자동차가 3.5%, 자동차 부품이 14.9%였다. 다만 일본의 대미 수입액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등 천연가스 수입을 7.2% 늘렸다. 이외에 가스터빈(23.9%), 바이오의약품(11.1%), 옥수수(39.8%), 컴퓨터기기(208.7%), 항공기(103%) 등 다양한 품목에서 대미 수입이 늘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수출이 10.4% 늘어난 반면, 대미 수입은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장상식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반 기업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걸 막을 순 없는 노릇이니, 일본처럼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미 흑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나스카 찾은 트럼프와 손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유명 자동차 경주 대회인 ‘나스카(NASCAR) 시리즈 데이토나 500’에서 카레이서의 환영 인사를 받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차남인 에릭의 딸이자 자신의 손녀인 캐롤리나와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실내 골프 연습장

버지니아 최고의
스크린골프 시설 완비!!

CTR
GOLF TRAINING REVOLUTION

첸틀리 CTR

• 인도어 골프 • 실내 연습장 • 스크린 골프 • 골프레슨
깨끗한 최첨단 시설에서
골프의 재미를 만끽하세요!



CTR
GOLF TRAINING REVOLUTION

703-817-2130

OPEN HOURS

3656 Centerview Dr., Suite 6, Chantilly, VA 20151 (첸틀리 롯데 마트에서 1분 거리)

1월~3월까지

월~금 10:00AM~10:00PM | 토~일 8:00AM~10:00PM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e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e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LENNOX Carrier TRANE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웰빙모아 Wellbeing More

연말연시 특별세일

20% 할인

여성의류, 극세사 이불, 모자, 가방, 내의, 강아지옷, 이불, 소품

침구세트 세일 20% off

사계절 면이불 • 베개 • 이불패드

가을, 겨울옷
신상
대량입하!



공진단 • 침향환 특별세일

20% 할인

종근당 침향환 프리미엄

침향은 나무에 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생성되는 진액이 수백년간 굳어져 만들어진 귀한 원료로 세계 3대 향 중 유일한 식물 원료입니다. 종근당 양품 침향보합은 이 귀한 침향의 함량을 22%로 만들어집니다.

20% 할인

김소형 침향환 녹용

침향분말 22% 함유
15가지 건포 원료(오가피, 뽕나무잎, 진피, 황당귀, 천궁, 감초, 작약, 황금, 건조차가바섯, 사향발효, 녹용, 홍삼, 로얄젤리, 산삼배양근)와 침향 22%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

20% 할인

광동 침향환

광동이 자체연구를 통해 얻은 함량비를 바탕으로 18단계 원료 품질 검증
17단계 생산공정, 511가지 원료 품질 규격 검사, 10단계 원제품 품질 검사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20% 할인

천호식품 천진단

천하를 다스리는 황귀와 천진단은 청정지역 뉴질랜드산 녹용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친 침향, 산수유, 침향귀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20% 할인

광동 경옥고

동의보감과 전통방식을 기반으로 인삼, 복향, 생지황, 꿀 등 엄선된 약재만을 원료로 사용하여 섬세 98도에서 120시간(5일)을 달이는 중숙과정을 통한 노력과 정성을 담아 만든 한방 영양제입니다.

20% 할인

황실의 보약 산삼 공진단

사향/ 산삼/ 녹용/ 당귀/ 산수유

풍기홍삼 직영점 입점기념 스페셜 세일

홍삼정환골드	6년근 홍삼분말	풍기 진 홍삼액골드
홍삼액 수	6년근 봉밀홍삼절편	홍삼정 올데이
산삼 배양근	건삼	녹용홍삼
고려태극삼	황풍정 석류 홍삼 콜라겐	고려 홍삼차

행복한 양배추즙

행복한 도라지배즙

행복한 자색양파즙

종근당

홍삼 마일드	전립선
LACTO FIT 락토핏 생유산균	
이문 코어 슬림 골드 당 케어	
아이클리어	홍삼스틱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천호식품

함께 먹어 더 좋은 녹용 홍삼	목 건강을 위한 도라지 200	남자력 향 증은 마시는 산수유
새콤달콤한 맛이 그대로 진한 석류	매일매일 활기차게 만들레와영귀	남새없고 맛있는 흑마늘 진액
양배추 주스 100 프리미엄	천진단	

우미노시즈쿠 후코이탄

장수 브랜드 110년 전통을 잇다

포스트신바이오프로바이오틱스

홍쌍리 청매실원 50년 이상된 전통향아리에 넣어 발효숙성한 매실원액

플레티넵 알티지 오메가-3

관절 및 안구 건강 하이웰 프리미엄 종합 12000

우메넨 전제품 석류, 제철매기스, 발효미네랄, L-광송

모다모다 샴푸

자연의 곡물작물 인후 단 4주 샴푸 사용으로 세차 케어를 건너뛰세요

종년 꿀밤 미니 압력솔

종년 꿀밤 옛날 미니 압력솔으로 곤드레 솔밭을 6분 30초만에 푹떡!

바누 저당밥솔

신일 롤링스텐 스팀 청소기

바누 다기능 티팟

누리아이 5800

다기능 디지털 우퍼 스피커 호도 라디오

NUC 만능분쇄기

메디테라피 온열돌 힐링 솔루션 불이는 릴렉스 팻

한미우체국 택배 대리점 전화 주문시 당일 발송 모든 행사는 애난데일과 센터빌 동시 실시

영업시간 9:30am ~ 7pm (365일)

애난데일점 (703) 256-5500

7133-D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자이언트 & 공바우 식당 옆

센터빌점 (703) 830-7755

5961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롯데마트, 신라제과, 하하핑크 사이

중도층 정권교체론 58% ... ‘광장만 보지말라’ 경고

정권연장론은 39%에 그쳐
여당내 “중도 떠난다” 위기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열기가 날로 고조되지만, 여권을 향한 여론은 외려 차가워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광장의 열기에만 매몰되면 중도 확장은 요원하다는 위기감이 여당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응답전화(ARS) 조사에 따르면, ‘집권여당의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4.5%,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에 해야 한다’는 응답은 51.5%로 격차는 오차범위(±3.1%) 밖인 7.0%포인트였다. 정권 교체 응답은 전주 조사 대비 2.3%포인트 상승하고, 정권 연장 응답은 0.7%포인트 하락했다.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여권 후보가 크게 밀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양자 대결은 이 대표 46.3%, 김 장관 31.8%로 14.5%포인트 격차였다. 이 대표(46.6%) 대 오세훈 서울시장(29.0%), 이 대표(46.9%) 대 홍준표 대구시장(26.2%)의 격차는 더 컸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1.4%, 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대학 캠퍼스도 의견이 갈라졌다. 17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 공동행동’ 소속 학생 등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 등이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의 발언을 막아하고 있다. [뉴스1]

주당 43.1%로 박빙이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1.4%포인트 하락하고 민주당은 2.3%포인트 올랐다.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로 좁히면 여권의 열세는 더 두드러졌다. 중도 응답자는 정권 연장 38.5%, 정권 교체 57.8%로 정권 교체 응답이 19.3%포인트 높았다. 양자 대결에서도 중도 응답자는 이재명 49.5% 대 김

문수 27.1%, 이재명 50.4% 대 오세훈 31.2%, 이재명 50.6% 대 홍준표 24.5%로 전체 응답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앞서 10~1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화면접 방식(성인 1001명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1%,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

은 50%였다. 특히 중도 응답자로 좁히면 정권 재창출(29%)보다 정권 교체(63%)를 원한다는 응답이 크게 높았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는 인용 58%, 기각 38%였지만, 중도 응답자는 인용 69%, 기각 29%로 탄핵 인용에 더 손을 들었다.

이준호 에스티아이 대표는 “보수 결집으로 인한 여권 반동이 천장에 부딪

치고, 중도 포섭 대결에서 최근 여당이 밀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광장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집회는 여당의 반동을 상징했다. “사분오열했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와는 다른 보수 진영의 단일대오”(국민의힘 TK 지역 의원)라는 평가였다. 최근엔 탄핵 반대 집회에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가 합류하고 동대구역 집회에 5만2000명(경찰 추산), 광주 금남로 집회에 3만 명이 몰리며 보수 결집은 더 강화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광장과 달리 중도층은 오히려 여권에서 이탈하는 듯한 여론조사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여권에선 ‘광장의 열기만으로 조기 대선 승리가 가능한가’라는 의문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당이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는 인상을 주자 관망하던 중도층이 경고장을 날린 것 같다”고 했다. 영남 지역 의원은 “지지층 결집이 여당 몰락을 막아준 건 분명하지만, 이제는 중도층 포섭에 신경을 쓸 때”라고 했다. 이재명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는 “사법부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중도층의 반감을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손국화·조수빈 기자

여인형 “신병확보 명단, 가장 큰 리스크”... 위법성 인지 정황

〈전 방첩사령관〉

검찰 ‘여인형 지시’ 적은 메모 확보
계엄해제 뒤 부하 간부들에 발인
압수수색 대비 컴퓨터 교체 지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방첩사 간부에게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인 등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휘하 간부가 여 전 사령관의 계엄 해제 후 대책 지시를 받아 적은 자필 메모에서다.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 명단을 작성했고, 여 전 사령관이 이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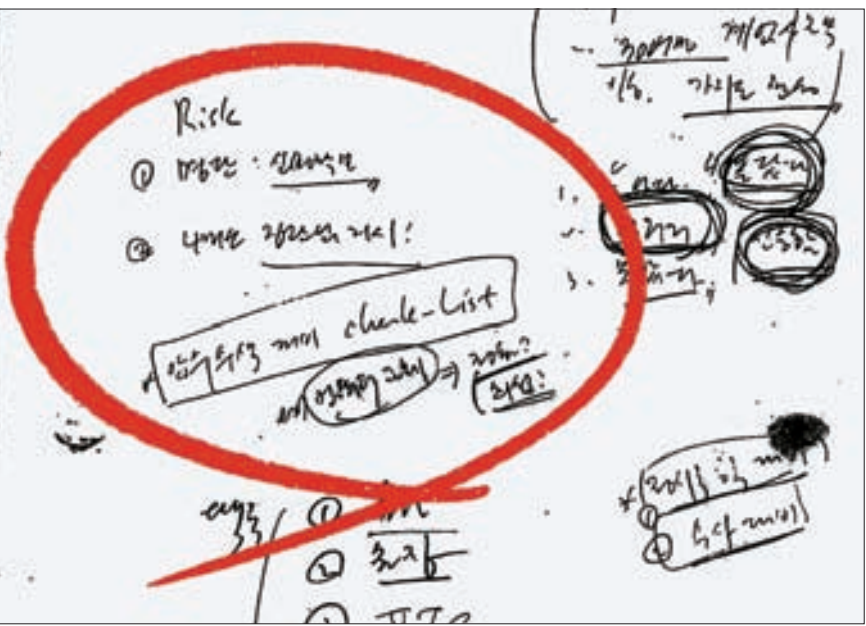
17일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과 군검찰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대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처장이

지난해 12월 5~6일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 적은 메모를 확보했다.

이 메모에는 ‘리스크 ① 명단: 신병 확보, ② 4개소 장관님 지시’라고 적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처장은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인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선관위 등 4개소 투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며 “그 의미로 적시한 것”이라고 군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정 처장은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듣고 ‘압수수색 대비 체크리스트, 컴퓨터 교체’ 등도 메모에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육군 준장) 역시 여 전 사령관이 “어제 일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나중에 수사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고 특수본에 진술했다. 특히 “(체포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지난해 12월 5~6일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 적은 자필 메모. ‘리스크 ①명단: 신병 확보, ②4개소 장관님 지시’라고 적혀 있다. [KBS 캡처]

명단은 아예 없어서, 없는 걸로 해라”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30분

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십여 명의 위치를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국회에 정치인 체포를 위해 방첩사 병력을 보냈고 동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

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지원 요청도 했다. 다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며 정치인 체포 시도는 실패했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대한 질문에 “그 사실은 말씀드릴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 여기서 ‘예, 아니요’ 단문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답한 바 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시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정 처장에게 “선관위 청사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하라”고 명령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해지자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파괴하라.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와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서도 여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형사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 메모에 대해 여 전 사령관 측은 “(체포 명단은) 신병확보를 위한 출동 부분을 리스크라고 판단한 것이다”며 “방첩사는 누군가 체포하면 신병을 인수받아 오기 위해 출동을 했고, 이 부분을 리스크 요인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경민·강보현 기자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수잔 김

장기이식·암수술 못해 환자들이 스러져간다

전공의 사직, 의정갈등 1년
전공의 1.3만명 중 출근 8.7%뿐
상급병원 6대 암 수술 21% 줄고

내일(19일)이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진료 현장에서 이탈한 지 1년이다. 지난 1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531명 중 1174명(8.7%)만 출근한다. 진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장기이식 등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숨지는 일이 줄을 잇고 있다. 의·정 갈등이 풀릴 가능성이 작아 당분간 비극이 계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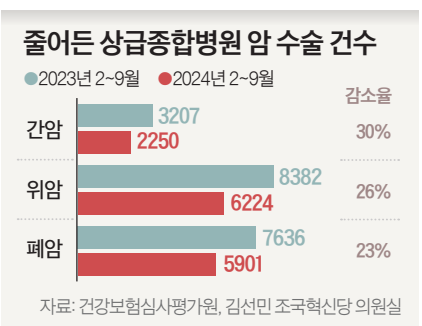
지난해 6월 A씨(55)는 급성 심근경색에다 심장 쇼크가 왔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 관상동맥 중재시술(PCI)로 급한 불은 졌다. 유일한 회생법은 심장 이식. 바로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적합한 공여자(뇌사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심장은 나빠졌다. 11월엔 에크모(인공심폐보조장치)를 다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24일간 버티던 그는 12월 초 폐혈증

(전신 혈액에 균이 침투한 상태) 등으로 숨졌다.

B형 간염이 악화된 B씨(60)는 급성 간 부전(기능을 못 함)과 간암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3월 혼수에 빠져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계속 나빠져 11월 초 서울대병원으로 실려왔고 이식 대기자가 됐다. 간 기능이 더 떨어졌지만 공여자를 찾지 못했고, 12월 만에 숨졌다.

의·정 갈등으로 간·신장·폐·심장 등 장기이식이 줄면서 중증환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대병원은 2023년 359건의 간·신장·심장 이식 수술(뇌사자·생체 이식)을 했으나 지난해 277건으로 82건(23%) 줄었다. 최종증 환자 7명이 간·폐 이식을 기다리다 숨졌다. 서울의 ‘빅5’ 병원 한 곳은 같은 기간 간·신장·심장 이식 수술이 878건에서 567건으로 311건(35%) 줄었다.

장기이식이 감소한 건 마취과·외과 등의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수술이 20~40% 줄어든 데다 국내 뇌사 기증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국립장기



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뇌사 기증자는 2023년 483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86명 줄었고, 이로 인해 뇌사자 장기이식이 477건 줄었다. 2019~2023년 연평균과 비교해도 이식이 약 346건 줄었다.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도 늘었다. 지난해 1~6월 1578명이 숨졌다. 월평균 263명꼴인데, 2019~2023년 월평균(211명)보다 25% 늘었다.

민상일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환자 가족을 설득해 장기 기증 동의 받고, 장기를 이식할 때까지 중환자실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런 일을 주로 전공의가 했는데, 그게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민 센터장은 “최중증 상태

의 간·폐·심장 이식 대기자가 1주일 내 이식받지 못하면 대부분 사망한다”고 설명했다. 흉근 이대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거의 이식 수술을 못 했다”며 “요새는 응급실에 오기 힘들어 집에서 숨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뇌사자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지방 대학병원은 더 심각하다. 최병현 양산부산대병원 간담체외과 교수는 “의료 인력, 특히 마취과 의사가 부족하니가 뇌사자가 나와도 수술실을 열지 못한다. 수술이 예년의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 넘게 대기자 명단에 오른 간경화 환자는 “간이나 폐에 배에 물이 차서 ‘응급실행-입원-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탄식했다.

암이나 뇌 진료도 어려워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9월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위·대장·폐·간·유방·갑상샘 등 6대 암 수술이 전년 동기보다 21% 줄었다. 간암 30%, 위암·갑상샘암 26%, 폐암은 23% 줄었다. 뇌종양·뇌졸중 등을 치료

하기 위해 긴급히 이뤄지는 개두술도 1년 새 24% 감소했다.

서술기(35)씨의 아버지(59·폐장암 4기)는 항암 치료를 받고 암세포가 기적같이 줄어들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수술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 의료진은 “두 달 후 다시 일정을 잡자”고 했다. 다른 대형병원도 마찬가지였다. 그새 다시 암세포가 번지면서 수술이 불가능해졌고, 8월 숨졌다. 서씨는 “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게 상황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50대 C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어머니를 보냈다. 동네 산부인과 원장이 “암인 것 같다”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고했다. 상급종합병원 두 군데를 예약했는데, 두 병원 모두 “전공의 이탈로 신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면서 취소했다. C씨는 “지금도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안기중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이 혈액암 신규 환자를 받지 않은 지 오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의대정원 데드라인 두달 앞... 의정 대화, 여전히 헛바퀴

(2026학년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휴학한 지 오는 19일로 1년을 맞는다. 그런데도 의·정 간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17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양측 간 대화는 지난달 1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면담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초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대화에 나섰다. 그는 김 회장과 만난 뒤 “2월 중에는 (의협과 협상을) 타결해 3월에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최대한 자주 만나자고 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한 달간 아무런 진전이 없다.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정부는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고 있고, 의료계는 정부가 내놓을 수 없는 걸 요구하며 대화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나서긴 했지만 지금까지 의료개혁을 추진해 온 복지부 입장에서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료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엔 “시간이 없으니 무조건 협상을 거부할 게 아니라 안을 가지고 협상하자”(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정부 리더십 부재를 핑계로 대화를 안 하는데, 그새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며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여전히 강경하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우원식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부터)이 17일 의협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의장과 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에 가세한 강성 전공의들은 ‘급할 거 없다’ ‘대통령 선거 시점으로 예상되는 5월까지의 누워 있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의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 최종 시한은 4월 말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시 일정상 2월에는 의대 정원이 결정돼야 5월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 요강이 공표될 수 있다. 늦어도 4월 말을 절대 넘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 안에 조정이 안 되면 내년도 정원은 지난해 발표대로 2000명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정원 조정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 14일 조규홍 장관은 “내년도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 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의원 질의에 “3058명(증원 이전 정원)부터 5058명(2000명 증원)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무리 줄더라도 최소한 기존 정원만큼은 뽑겠다는 얘기다. 의료계 입장은 다양하다. 대한의학회는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밝혔다. 증원이전보다 더 감원하거나, 아예 2026학년도 신입생을 뽑지 말자는 주장도 있다. 의협은 숫자 논의에 앞서 정부가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내놔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 신입생과 휴학생 7500여 명이 의대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때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으란 요구다.

적정 의료인 수를 정하기 위해 국가가 입법 추진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추계위의 의결권, 해당 직종(의사) 절반 이상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의료계와 비의료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별취재팀

사직 전공의들 “환자 곁으로 돌아갈 명분 확실히 있어야”

전공의들은 1년째 이어진 의·정 갈등을 풀 해법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중앙일보가 인터뷰한 전공의 10명은 “병원으로, 환자 곁으로 가고 싶다”면서도 “돌아갈 명분이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직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이 동네 병·

의원 등 각종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서울대병원을 사직했던 장재영씨는 “주변을 보면 대부분 일(의료기관 취업)을 하며 지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떨어졌다. 강성 성향의 목소리가 부각되다 보니 정부와의 협상이 더 어려웠던 것 같다”고 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6개월째 근무 중인 한 산부인과 전공의는 “(전공의가 개원가로 대거 나오면서) 일반의 폐이(월급)가 예년의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들 억지로 버티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양보를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대로라면 복귀할 명분

이 없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 중 가장 고민이 큰 이들은 병역 미필자다. 지난 1월 군 복무를 수련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정부의 입영 특례에 응하지 않아 언제 입영할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송하윤씨는 “군 미필 사직 전공의는 현역 병으로 입대할 수 없어 군의관·공중보건의로 가야 하는데, 순번이 밀려서 길

게는 4년 기다려야 한다니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인터뷰에 응한 상당수는 “전체 전공의가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각자가 생각하는 ‘엔드 포인트(End Point·종료점)’가 다르기 때문(장재영 전공의)”이라서다. 다만 복귀가 가능한 타협선으로 의대 정원 감원을 꼽는 이들(6명)이 많았다.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2024 TAX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GALAXY REALTY 갤럭시부동산 ★

주목	매매	현트
9490 VA Center Dr, Vienna, VA	SALE \$495,000	방 2, 화 2 콘도, 비전니 하트코팅 할 수 있음, Hotaway Park 옆, 집 전체 renovation
1474 Hoxworth Mill Rd, McLean, VA	UNDER CONTRACT \$1.25M	다수의 오피스 빌딩 경쟁 시켜서 listing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 no contingency 로 계약 완료
12495 Cliff Edge Dr, Herndon, VA	SOLD \$1.2M	마지막 내 놓자 마자 좋은 오피스 빌딩, 1/21/25 세물전도 완료
107** Salt Meadows, McLean, VA	SOLD \$2.73M	한국에서 동업상으로 집을 보고 계약, Cash buyer, 1/21/25 세물전도 완료
McLean, VA	SOLD \$900K	부지를 집이 나오면 소계로 팔려고 한 땅이름이라 시는 분야, 좋은 집이 나와 소계팔려다 바로 구입
12908 Mount Royal, Fairfax, VA	SOLD \$872K	위 엘리베이터 시는 분야 소계, 4명씩 경영을 하고 직원, 이기는 오피스? 자신있음, 1/22/25 세물전도 완료

사업체 매매: 델라웨어(DC) \$150K

DC 내 위치 좋은 회사 잘 되는 곳이나 문화 배정 사업운영하면서 부자들 집, 두 자식 집 살 때 다른 제이언트도 지을할 정도로 엄청난 수입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현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1042 Warbler Place, McLean, VA 2/14/2025 입주	NEW	3년	마지막 물리지 않고 다음 세입자 바로 연결, 한국에서 영입하고 3년 현트함, 주재함
2956 Paddock Wood Ct, Oakton, VA 2/19/2025 입주	NEW	2년	마지막 물리지 않고 다음 세입자 바로 연결, 주재함
2017 Meadow Springs Dr, Vienna, VA 1/31/2025 입주	NEW	2~1년	마지막 물리지 않고 다음 세입자 바로 연결, 주재함
919 Jaysmith St, Great Falls, VA 3/1/2025 입주	NEW	2~2년	마지막 물리지 않고 다음 세입자 바로 연결, 주재함
McLean, VA		3년	집내부를 보지 않고 구입, 공실임이 빠른 현트, 구입/전도 모두 세입자로 호환되는 현트고 큰 현트, 부지를 집 사고 싶은 분 현트하셈, 주재함의 현트함 현트고 구입 후 바로 세입자로 연결 시는 있음
8807 Ashgrove House Ln, Vienna, VA		1~1년	세로 미반은 거
1833 Clachan Ct, Vienna, VA		3년	주재함, 외국인 주재함 현트 놀이랑하고 현트 현트함
979**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주재함
966**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주재함
967**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주재함
967**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주재함

그 외 30여개 더 있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당론과 달리 탄핵 찬성한 인사, 이당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여권 인사를 겨냥해 “앞으로 이 당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퇴출당했다. 지금은 그때와 판이 다르다. 8년 전 처럼 정권을 야당에 갖다 바쳐선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시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계엄은 부적절, 탄핵은 반대”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 후보가 되면 나라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했었다.

-계엄 선포는 어떻게 봤나.
“참 뜬금없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계엄 사유로 댄 것은 아주 부적절했다. 다만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다.”

-왜 불법이 아닌가.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非常大權)’을 행사한 것이다. 또 정권 찬탈의 목적이 없어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폭동에도 이르지 않았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인데, 그 경우 실정법 위반일 순 있지만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 사실상 2시간의 해프닝이었는데, 이를 두고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건 옳지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씨와의 연루설에 “황금폰에 있다는 내용 중 내 목소리, 문자 나오는지 보라. 있었다면 진즉 까졌을 것”이라고 했다. 송봉근 기자

-탄핵안이 통과된 건 여권 분열 때문인가.
“정당엔 구속적 당론과 권고적 당론이 있다. 집단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할 땐 구속적 당론을 제기한다. 개인 소신은 존중하지만, 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에선 소신도 접어야 한다. 그게 싫으면 본인이 그 집단에서 나가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도 탄핵에 찬성했다.

“구속적 당론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인사들은 앞으로 이 당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이나 좌파에서 영웅시한다고 우쭐거리는데, 참 철박서니 없는 행동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

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당시 108석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의결했지만, 탄핵안은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여당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었다. 홍 시장은 2월 말 『꿈은 이루어진다』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다. 책 제목처럼 탄핵 정국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숨기지 않는 홍 시장을 향한 지지층의 반발 여론도 존재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전제한 움직임이란 것이다.

-사실상 대선 준비에 나선 것 아닌가.
“오해가 많은데, 나는 정상 대선이란 조기 대선이란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 박 전 대

통령 때 아무 준비 없이 탄핵을 당해 문재인에게 정권을 갖다 바쳤는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한 번 당해 봤으면 족하다.”

-홍 시장에 대한 지지층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강성 지지층의 오해다. 김문수 장관이 뜨는 이유다. 근데 막상 판이 닳으면 준비 안 된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 김 장관이 뜨는 건 탄핵 반대 지지층 움직임과 유사하다. 지지층을 뭉치는 역할을 해주니 나쁠 게 없다. 오세훈 시장 토론회에 현역 의원이 50명가량 왔는데, 그건 의미 없다.”

-‘명태균 리스크’가 거론된다.

“명태균 쪽과 우리 쪽 사람 중에 친한 사람끼리 무슨 이야기가 오간 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자기꾼으로 보고 옆에 오지 못하게 했다. 황금폰에 있다는 수만 건 내용 중에 내 목소리, 문자 하나 나오는지 보라. 있었다면 민주당에서 진즉 깎을 것이다.”

홍 시장은 개헌과 관련해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위해선 제7공화국 체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삼권 분립을 형제화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로 개헌해 양당 체제를 깨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후보는 누가 될까.

“이재명 대표 대항마가 없을 것이다. 다만 양아치 정치를 하는 사람을 국민

이 대통령으로 뽑을 일은 없다.”

-야당을 겨냥한 비판 수위가 높다.

“지금 대통령제 폐해 때문에 이 혼란이 왔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겠나. 국회 권한이 더 막강해서 탄핵을 29차례나 하고 다수의 폭거로 예산 편성도 국회 마음대로 했다.”

-개헌 로드맵이 있나.

“미국식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해야 한다. 대통령 권위 시에 임명직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난센스다. 의회는 최고조에 다른 갈등 조정을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 하원 갈등을 상원이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의원정수는 하원 150명·상원 50명으로 줄이고, 대선 지방 의회를 재정비해 지방 사무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도 없애야 한다. 의원들이 무분별하게 국회에서 허위 폭로하고, 죄를 지어도 불뽕들가지 않는다. 국회가 마치 소도(蘇塗)처럼 돼버렸다.”

-개헌 시간표도 중요하냐.

“총괄적 헌법 정비에 드는 시간이 두 세 달 갖고는 안 된다. 정권 빨리 잡을 생각밖에 없는 민주당이 동의하지도 않는다. 만약 조기 대선이 생긴다면, 다음 정부에서 논의한 뒤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2030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하면 주기가 맞다. 그림 총선이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될 것이다.”

대구=김기정 기자

권성동 만난 MB “이재명, 한덕수 탄핵 철회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 서초구청계단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고 다수당이기도 하다”며 “그걸 극복하려면 여당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당은) 소수정당이라 뽄뽄 뽄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안다깝더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번 면담은 탄핵 정국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권 원내대표 측이 이 전 대통령에게 요청해 성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비공개 면담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빠른 복귀를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한 총리가 빨리 복귀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거나,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해서 한 총리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권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관세뿐 아

니라 통상 문제가 있는데,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소추로) 카운터파트가 사라지지 않았나”라며 “한 총리가 미국 전문가이니 잘할 수 있는데, (직무정지 상태라) 걱정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한 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주미대사로 활동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준비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미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모든 나라 정상이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애쓰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미 관계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나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비공개 면담에서 권 원내대표가 과거 이명박 정부 법무비서관으로 일할 때를 회상하면서 “오전 7시에 국무회의하고, 리먼브러더스 사태도 잘 극복하고 참 고생이 많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이날 면담에는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최은석 원내대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이 17일 청계계단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났다. [뉴스1]

표 비서실장과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배석했다.

장서윤 기자

명태균 측 “김건희, A검사 의원 되게 도와주라 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하는 모양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54)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 공천관리위원

장(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의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부부 조사만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검찰은 ▶대통령 등 공천 개입 의혹 ▶여론조사결과와 무상 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공직선거·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다수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들 사건 핵심은 지난 대선 과정에

서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선거에 도움을 준대가로, 지난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는지 여부다.

창원=안대훈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MOVE with 김경아 !!”

저의 전문 노하우로 집을 잘 팔고, 잘 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 경 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트럼프 2기 첫 대북정책 확정 전에 한국 입장 반영시켜야”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며칠 뒤면 취임 한 달이 된다. 트럼프 2기는 대외 개입을 줄이는 신고립주의 노선이 예상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신제국주의’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멕시코·그린란드·파나마·가자지구 등에 노골적인 주권 개입과 영토 야심 등 팽창주의 행태를 드러냈다. 공교롭게도 2017년 트럼프 1기에 이어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 시점에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 당하는 정치적 혼란에 휩싸여 있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세상은 숨가쁘게 요동치는데 한국 정치의 시계만 멈춰선 듯해 걱정스럽다.

윤병세(72)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을 이 시점에 찾아가 만난 이유는 그가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무이한 외교부 장관(4년 3개월)으로 활약했을 뿐 아니라 트럼프 1기 초반 5개월을 현직 장관으로서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최근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해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하고 귀국해 현지 동향과 분위기를 깊이 있게 전달할 ‘메신저’다.

취임 이후 변화상을 지켜본 소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하더니 실제로 첫날에 행정명령·각서·선언 등 40여개 문서에 서명했다. 이어 다양한 관세 폭탄 예고 및 시행 발표, 가자지구 장악·소유의향 선언, 우크라이나전쟁 종전 협상 개시 합의 등 전무후무할 정도로 파격적 조치를 군사작전 하듯 실재 없이 내놨다. 1기 때와 달리 준비된 정부임을 보여주기 위해 속도·강도·범위가 각각 변동급이다. 적과 우군을 가리지 않는 이런 조치의 단기·장기 여파에 대비하되 공포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 트럼프 2기에는 전략적 신뢰와 가치에 기반을 둔 동맹 개념은 약화하고 주고받기식 거래에 기초한 ‘트럼프 독트린’이 모든 영역을 주도할 것이다. 우방이든 적이든 미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최상의 기준이 될 것 같다.”

트럼프, 군사작전 하듯 대외 정책 쏟아내
-트럼프 2기를 보는 미국 시각은.

“8월에 걸친 핵심 싱크탱크들과의 개별 회의에 워싱턴의 10여개 연구소와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AFPI 등 친트럼프 연구소 인사들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 CSIS·브루킹스연구소 등 싱크탱크 인사들은 ‘충격과 공포의 시대’ ‘폭풍의 시대’ ‘혼돈의 시대’의 도래로 규정했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당분간 과거에 미국을 상대하던 방식은 접고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전개될 불확실성의 파고에 잘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파도를 잘 못 타면 피해가 클 것이고, 나름대로 잘 헤쳐 나가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상황에 대해 뭐라고 충고하냐. “한국 내정이 중점 의제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당하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최상목 부총리)으로 이어진 정치적 혼란이 얼마나 지속할지 우려하고 있었다. 특히 보수적 연구기관들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 향방이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감해했다.”

1기 때는 10일 만에 정상이 통화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미국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초기부터 한국 정부 및 정책에 강한 신뢰를 표명해 준 것이 지금과 다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말(취임 10일만), 3월 초(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후), 4월 초(시진핑 방미 회담 후) 등 세 차례 정상통화하며 소통했다. 한·미 동맹 강화, 북한 도발에 한·미의 강력 대응, 사드(THAAD) 배치 등을 놓고 긴밀히 협의했다. 당시엔 권한대행 체제임에도 미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과 전 세계에 보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권한대행(Acting)과 대화하는 것을 내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1기 초반에 3회씩이나 통화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엔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와 달리) 총리라는 독자적인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큰 저항감이 없었고, 고위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가을 경주 APEC 무대 잘 활용해야

당시 장관으로서 역점을 둔 것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2017년 2월(독일)·3월(서울)·4월(뉴욕)에 잇따라 회담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1기 정부 초기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소통

1기 때 정상-대행 통화 3회 소통
‘최대 압박·관여’ 대북정책에 반영

트럼프, 개인외교와 톱다운 선호
더 크게 주고받는 거래 검토해야

미국, 현재 결정의 동맹 영향 축각
트럼프 스톰에 초당적 힘 모아야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에는 한국도 경우에 따라 ‘더 크게 주고받는 거래’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중호 기자

하고 설명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담아 그해 4월 말에 발표한 트럼프 1기 첫 대북정책에 반영됐다. 이번 트럼프 2기에도 정책 방향이 담긴 연두교서(3월 4일 발표), 취임 초기 대북정책 리뷰, 올 연말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 등에 한국의 입장이 직간접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면 향후 4년 동맹관계의 기틀이 잡힐 것이다.”

1기 때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이 중심을 잡아줬는데, “이번 2기에는 트럼프 충성파들이 대거 입각했고, 상·하원 다수 의석을 공화당이 차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 없이 사실상 무소불위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 구조가 됐다. 모든 분야에서 속도전에 나설 태세다. 시스템보다 ‘개인 외교’를 중시하는 트럼

프의 톱다운 방식 정책결정 성향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제 모든 길은 트럼프를 통해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견제가 1기 때보다 최우선적 정책의제가 될 것이다. 트럼프 2기와의 정책 정합성 정도에 따라 동맹·우방국 관계에도 층위가 형성될 것이다.”

모든 길은 트럼프 통해야 하는 시대

한국을 뺀 북·미 직거래 우려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미국엔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 사태 등 시급한 현안이 있다. 대북 정책팀 구성을 완료한 뒤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도 ‘하노이 트라우마’가 있는데다 북·미 동맹조약으로 과거보다 여유가 생겨 북·미 모두 급하게 서두를 여건은 아니다. 만약 미국이 정상 회담을 서두르느라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칫 핵 군축 협상으로 성격이 변질하고, ‘스몰 탈’이나 중간 수준의 ‘나쁜 합의(bad deal)’가 될 우

려가 있다. 님하히 2월 초 미·일 정상회담과 최근 뮌헨안보회의의 계기로 열린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결과를 보면 향후 미국은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미, 한·미·일 조율을 이어갈 것 같다. 리처드 그리넬 대북 임무 특사가 주도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한국 입장을 모든 가능한 채널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강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이나 실무협상을 추진할 경우에도 목표와 성격, 시기와 추진 방식, 합의의 형식 등에 대해 한국 의견을 꼭 고려하게 해야 한다.”

미,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입장 주목

트럼프 청구서가 곧 날아올 텐데, “방위비 분담 문제는 바이든 정부 시절 합의 결과를 잘 활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조션업 MRO(유자·보수·정비) 외에도 군함 건조 등 양국이 원원할 수 있는 영역에서 주고받기(Give and Take)의 판을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요구 범위가 더 확대될 경우 한국도 ‘더 크게 주고 크게 받는 접근 방식(Big Give & Big Take)’을 검토할 수도 있겠다. 미국 해리티지재단이 최근 제안한 ‘한·미 전략적 경제 동반자(SEP)’도 이런 접근법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방위비 분담 차원을 넘어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동맹국의 역할 증대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따라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이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지정학적 문제에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미국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탄핵 사태 와중에 국익을 지키려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전대미문의 국내정치 혼란이 이어지면서 정상외교가 작동하지 못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거래외교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상호이익 분야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이라는 동맹이 북한위기 시대에 얼마나 미국에 큰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MAGA 꿈 실현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백악관·의회는 물론이고 미국 여론 주도층에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한·미 당국이 더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정부·기업뿐 아니라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종합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잇몸치료

치아교정

응급환자

치아성형

신경치료

Emergency

Veneer
Lumineers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www.naturadent.net

www.naturadent.net

T. 703-652-4265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우리말 바꾸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직장인과 대학생이 가장 헛갈리는 맞춤법으로 띄어쓰기를 꼽은 적이 있다. 우리말에서 띄어쓰기는 정말 어렵다. 띄어쓰기의 어려움을 보여 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한번’이다.

단위는 띄어 쓴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따라서 ‘한 번’이 횟수를 나타낼 때는 띄어쓰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해야 한다”처럼 표기하면 된다. 그러나 ‘한 번’이 시험 삼아 시도할, 기회 있는 어떤 때 등을 나타낼 때는 붙여 써야 한다. 합성어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한 번 먹어 볼까”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등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은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손님’을 쳐다보았다”는 문장을 보자. 과거 국립국어원은 이 경우의 띄어쓰기에 대한 질문에 ‘한 번’이 문맥상 횟수를 나타내면 띄어쓰고 그렇지 않으면 합성어로 붙여 써야 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한 번’을 띄어야 한다. 붙여야 한 다 논란이 많았다. 문맥으로도 의미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훈선이 이어지자 국립국어원은 다행히 2015년 표준정보보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미에 상관없이 ‘다시 한번’의 구 형태에서는 ‘한번’을 붙여 쓴다고 결정했다.

즉 문맥을 따지지 않고 ‘다시 한번’으로 붙여 쓰면 된다는 것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한인 경제 침체 탈출구는 엑스포



이은영
LA중앙일보
경제부 부장

한인비즈니스대회 조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3자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열렸다. 업무협약 골자는 ‘캘리포니아공동전시관 운영’이다.

LA·OC상회가 협력한 첫 프로젝트인 ‘캘리포니아공동전시관’은 한인 기업들이 수출 상담 성과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가 한인 기업들은 각 상공회의소로부터 부스비 2000달러를 지원받고 나머지 4000달러는 자비 부담으로 참가할 수 있게 돼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대회 조직위는 20개 한인 기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위가 이번 엑스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한 기업당 5차례 이상 1:1 수출 상담 기회를 갖는 것이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의 바 이어 유치팀이 참가 기업을 분석해서 한인 기업과 바이어를 매치한다. 조직위원회는 1년 넘게 바 이어 400개사 유치를 위해 발로 뛰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한인 기업들은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달 초 기준 부스는 지자체 220개, 기관 100개 등 총

355개 부스를 유치한 상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참가 기업에 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실 개최지의 지역사회가 같이 움직인다. 대회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지역사회 호텔, 식당, 쇼핑 등 이용으로 한인 상권은 특수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조직위는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만찬을 컨벤션센터만 고집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한국 기업들이 미주지역 수출을 넘어 현지 진출로 이어지면 한인 경제계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더욱 늘어 날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주지역 물건을 판매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협업하고 미주지역에 안착하기에 한국 경제와 문화를 잘 아는 한인 상공인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대리점, 총판 등 한인 상권에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또 범인으로 들어오면 회사 설립과 주재원, 현지 직원 채용에 따른 은행, 보험, 변호사, 회계사, 교육 등 서비스 이용으로 한인상권이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많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LA 한인 상권은 최고의 개최지다. 최근 자바, 요식업, 소매업, 부동산 등 거의 모든 한인 업종이 침체기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처럼 지역사회 상권이 같이 움직이는 엑스포가 열린다면 LA 한인 상권의 제2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열린광장

이산가족 상봉, 이제 주인 없는 잔치



윤재현
전 연방공무원

제작년 컴퓨터 전문가인 조카에게 고향 집 주소를 세계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라고 부탁했다. 깜짝 놀랐다. 고향 산전이 흑백으로 선명히 나타났다. 우리 집은 흰색으로 좀 크게 보였다. 개조한 것 같다. 월남한 아들이 있는 집이라고 몰수되고 노동당 세무 위원장이 사는지 모른다.

집 앞 개울이 흰색으로 보인다. 개울가에 키위 같이 좀 작은 복숭아가 익으면 먹을 만했다. 장마가 끝나면 꽃뿔이 복숭아나무에 매달려 일광욕을 즐겼다. 집 앞에 제방을 쌓아 만든 눈에 세워놓은 뱃단도 보인다. 집 옆에는 텃밭이 있고 붉은 흙 언덕에 참나무가 자랐다. 이른 봄에 가느다란 뿌리를 뽑아 씹으면 뱃을 것이 없이 달고 맛있었다.

집 뒤 약산에 올라가면 황금, 하수오(何首烏, 작약(芍藥))를 캐던 골짜기도 보인다. 우리 동네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보인다. 전시용 군사 보급 도로인 것 같다.

이 사진을 내 서재 벽에 붙이고 아침저녁으로 고향 집을 방문한다. 지구는 노출되어 있다. 이제는 숨을 곳이 없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그와 참모들이 미 해군 특공대가 빈 라덴의 자택을 습격하던 광경을 본 기억이 있다. 이 시간에도 수십 개의 첩보위성이 하늘에서 각국 수뇌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을 것이다. 첩보 위성이 한국의 DMZ도 부처님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전쟁과 같은 기습 작전이란 있을 수 없다. 인공위성의 첩보 작전은 세계대전 발발의 역지력이 될 수 있다.

전쟁은 억지되고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 공존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옛날 유대 민족은 포로생활 70년 만에 해방되었다.

우리 민족이 이산된 지 75년이 지났다. 하나님, 얼마나더 기다려야 합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다. 남북 이산가족협회가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성명을 또 발표했다. 북측은 반응이 없다.

한국 전쟁 와중에 월남한 실향민이 연로하여 몇 사람 남지 않았다. 구순이 지난 나 같은 경우, 북한의 부모와 형은 연로하여 생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형의 자손들은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조카들을 만나러 북한에 간다? 천만에! 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주인 없는 잔치가 되어버렸다.

가족끼리 서신이나 전화 연락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생사도 모른다. 이런 비극이 어디 또 있다. 미국인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창피하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나 베트남 사람들은 서로 왕래한다는데.

이제는 눈물도 말랐다. 그러나 꿈은 가끔 꾸다. 집 뒷산 소나무 사이로 파발총을 멘 인민군이 내뒀을 쫓아온다. 거의 잡힌다. “아이고 어머니!” 외마디를 지른다. 아내가 나를 흔들어 깨운다, 눈을 떠보니 우리 집 침대 위다. 꿈이야, 고맙다.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리, 인스펙션

5. 터미이트 검사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6. 홈워런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1월~2월 지금 집 살 좋은 기회!

- 개인스빌 성글 레이크 매니저스 골프장내 \$1,060,000
방4, 화4.5, 차고2, 4433 sqft, 2004, 0.3acre, 풀러오, 스크린
- 알디성글 \$1,250,000
방5, 화4.5, 차고2, 4,630 sqft, 2016, 전부 업그레이드 새 집 골음

Open House

Pending in 1 Day

천문리 타운 \$779,000

방4, 화3.5, 차고2, 2,900 sqft, 2005,
전부 업그레이드, 맨드윅, 1st owner,
내부외부 잘 관리 최상, 최고 학교, 정,
코스코, 50/28, Dulles Airport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립니다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 센터빌 미용실 \$90,000
- 개인스빌 성업중 마장원렌트 \$3,300
1300sqft, 29/66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REALTOR®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과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 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통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 303-4556 / t. (703) 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USC공대선 여학생 2000명 넘게 석·박사 과정

여학생이 많은 공과 대학원 톱20

공학이라면 남학생의 전유물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다. 그리 멀지 않다. 심지어 하버드대가 1977년부터 남녀 공학이 됐다. 한국의 대학 대부분이 아주 오래 전부터 남녀공학이었다는 것을 따져보면, 긴 역사의 미국 대학들조차 최근에야 남녀공학이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여학생이 많지 않다. 미국의 공학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대학 20 곳을 알아본다.

미국의 수백개 공과대학원 중 여성 재학생 숫자가 1500명 이상인 학교가 6곳에 달한다. 예상할 수 있듯이 공학 프로그램에서 여학생은 일반적으로 소수에 속하며, US뉴스가 매년 진행하는 설문 결과 196개 학교의 평균 여성 등록 비율은 28.9%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 별로 여성 재학생 숫자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3년 가을 기준으로 석사 및 박사 공학 프로그램에서 여학생이 가장 많은 20개 대학 중 단연 1위는 보스턴에 있는 노스이스턴 대학으로 여학생 비율이 38.3%였다.

1. 노스이스턴=전체 학생 숫자는 1만 1158명인데 여학생은 4274명이다. US 뉴스 공대 순위는 공동 38위다. 5개 학과에서 50가지가 넘는 석·박사 학위 및 대학원 자격증 과정을 제공한다. 75개 이상의 학생 동아리 등에서 활동한다.

2. USC=전체 숫자는 6850명인데 여성은 2181명이었다. US뉴스 공대 순위는 공동 23위다. 10가지 석사 학위(우주항공공학, 생의공학, 컴퓨터과학 등)를



지난 2003년 9월 학기에 미국 내 공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비율이 많게는 41.5%에 달하는 곳도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업 중인 공과대학원 모습. [Copilot생성]

노스텍사스 주립대 41.5% 달해
애리조나 주립 '가장 혁신적' 1위
공학 분야 대학원 톱3 모두 포함

비롯해 13가지 박사 과정을 제공한다. 박사 프로그램으로는 항공우주공학, 환경공학, 석유공학 등이 있다.

3.컬럼비아=메이커스페이스와 스타트업랩 등 학생들이 연구, 협업 및 창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한다.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할렘 바이오스페이스 등이 있다.

4. 조지아 텍=US뉴스가 선정한 '2025년 가장 혁신적인 대학(Most Innovative Schools)' 리스트에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기술과 창업에 관심 많은 우수 학생을 유치하며 대학원 공학 프로그램 역시 인기다.

CREATE-X(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같은 프로그램과 하이브 메이커스페이스 등 캠퍼스 전체가 신진 혁신가들의 창의적 기회를 제공한다.

5.애리조나 주립대 (Arizona State)= '가장 혁신적인 학교' 1위이고 캠퍼스의 혁신적인 기술과 시설을 적극 활용한다. 50개 이상의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이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대학과 연구진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창업 11건, 발명 공개 178건, 라이선스 계약 34건, 미국 특허 106건이 나왔다.

6. 카네기멜론=전체 숫자는 4815명인데 여성은 1543명이었다. 공대 순위는 7위다.

7.노스텍사스 주립=10가지 석사 학위 프로그램과 5가지 박사 학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석사로는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이 있고, 박사로는 생의공학, 전기공학, 기계-에너지공학 등이 있다.

8.일리노이 주립 어바나-샴페인=석·박사 학위 외에도 Graduate Society of Women Engineers 등 여러 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9.스탠퍼드=Graduate Society of Women Engineers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학생 조직에 참여해 학업을 보완한다.

10.MIT=MIT 공과대학 학생 및 동문들은 3만200개의 기업을 창업했고, 460만 명을 고용하며, 연 1조90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이 운영하는 'MIT \$100K Entrepreneurship Competition'은 팀이 혁신적 기업 아이디어를 제시해 실제 회사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다룬다.

11.텍사스 주립 알링턴(Arlington)= 다양한 팀, 전문 단체(Engineering Without Borders, Society of Women Engineers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Aero Mavericks라는 항공 우주공학 동아리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설계, 제작, 테스트, 비행 등 공학 실무 전반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12.NYU=1만 평방 피트 규모 메이커스페이스는 학생들이 혁신, 협업, 연구,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밀링 머신, 첨단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등 각종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여기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하거나,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다.

장병희 기자

▶ 4면 '대입 컨설팅'에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홈케어 에이전시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한국 국적 출신 하버드에 21명 합격

2024년 가을학기 아이비리그 합격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기 바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미국 명문대는 아이비리그 대학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8곳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민자 가정인 한인들에게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더욱 간절하다.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민 2세인 자녀가 탄탄한 네트워크에 소속돼 마음껏 자신의 꿈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가을학기 신입생의 입시 결과를 살펴봤다.

미국 명문 대학을 대표하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2024년 가을 학기 신입생 선발 결과가 학교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다트머스, 유펜에서는 지원자가 증가했지만 브라운, 하버드는 감소했다. 코넬은 아직 2028학년 입학 데이터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입시 결과는 전년도와 비슷했다고 알려져 있다. 아이비리그 중 일부는 성적이 개선되었고, 일부는 전년도보다 나빠졌다. 전년도에 성적이 좋았던 일부 대학도 올해는 떨어졌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2023년 연방대입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후 처음으로 실시한 입시이기 때문이다.

대입 환경의 극적인 변화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아직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다. 이 결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이 신입생들의 인종 분포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못했다. 이 자료는 연방 정부에서 의무화한 커먼 데이터 세트(common data set)에 공개될 때까지 그 결과를 알 수 없게 됐다. <표 참조>

◆**브라운(Brown University)**=조기 전형(얼리디시전)에 지원한 6244명 중 898명에게 합격을 통보해 14.38%를 기록했다. 조기 전형중 퀘스트브리지로는 64명이 합격했다. 지원자는 전년도의 6770명 보다 8% 적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아 전년도의 12.98%보다는 높다. 정기 전형에서 1623명이 합격했는데 역사상 가장 적은 정기 전형 합격자 수

자다. 따라서 총 지원자 4만8898명 중 2521명의 합격은 지난 2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것이다. 총 합격률 5.16%로 지난 3년 중 가장 높았다. 조기 전형 유학생 합격자는 전 세계 52개국에서 나왔다. 캐나다, 중국, 인도, 페루, 한국, 싱가포르, 영국 출신이 눈에 띈다. 조기 전형 합격자의 19%는 1세대 합격자로 지난 5년 동안 가장 높은 비율이다.

◆**컬럼비아(Columbia University)**=조기 전형(얼리디시전)에서 6008명이 지원했다. 전년도의 5733명 보다 5% 증가한 것이다. 이는 US뉴스 순위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후 최저를 기록했다. 아직 조기 전형 합격률과 2025년 가을 학기 신입생 숫자를 발표하지 않았다. 자료를 잘못 알려져 US뉴스 최고 대학 순위가 2위에서 18위로 떨어졌다. 올해는 13위다.

조기 전형은 6008명, 정기 전형은 5만4240명이 지원해 총 6만248명이 지원했다. 전체 합격률은 3.86%로 전년도의 3.93% 보다 낮지만 2년전 3.73% 보다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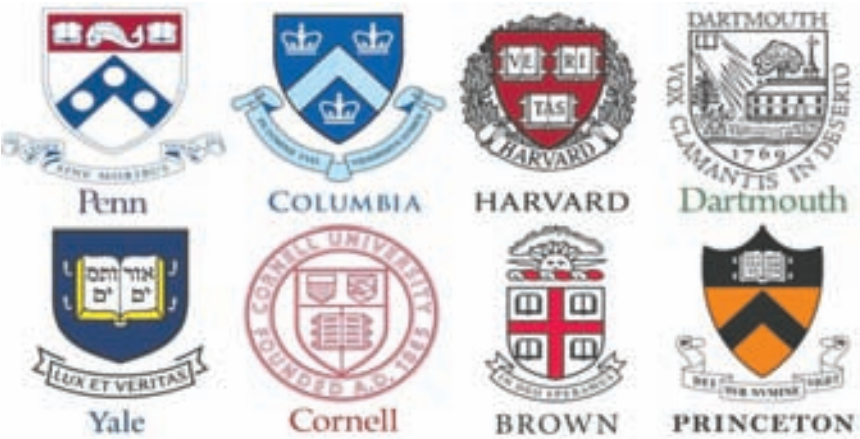
◆**코넬(Cornell)**=지난 몇 년 동안 합격 통계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방에서 의무화한 커먼데이터 세트를 통해서만 공개한다.

조기 전형(얼리 디시전)과 정기 전형을 통해서 5139명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지원자 숫자에 대한 통계가 없어서 전형별 합격률, 전체 합격률은 알 수 없다. 유학생 합격자는 전 세계 93개국에서 왔으며, 16.5%는 1세대 합격자다.

◆**다트머스(Dartmouth College)**=조기 전형(얼리디시전)에서 606명이 합격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최고 수치인 3550명이 지원한 결과다. 이는 전년도 보다 18% 증가, 이전 3개 학년보다 33% 증가한 것이다. 조기 전형 합격률이 17.07%로 전년도의 19.21%를 깨뜨렸다. 또 퀘스트브리지를 통해 합격한 학생은 총 74명이다. 정기 전형에는 2만8106명이 지원해 1104명을 합격시켰다. 결국 정기 전형 합격률이 3.93%로 사상 최저치였다. 퀘스트브리지를 제외하고 총 3만1656명의 지원자 중에서 1710명이 합격했다. 다트머스의 2024년 가을학기 합격률은 5.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격자의 56%는 공립 또는 차터스쿨 출신이고 합격자

2024년가을학기 아이비리그 입시 결과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률	정기전형 합격률	정기전형 합격자수	정기전형 지원자수	조기전형 합격률	조기전형 합격자비율	조기전형 지원자수	조기전형 합격자수	등록 예상자	전체 지원자수	전체 합격자수
브라운	5.16%	3.81%	1623	42654	14.38%	52.82%	6244	898	1700	48898	2521
컬럼비아	3.86%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6008	비공개	1450	60248	2327
코넬	비공개	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a*비	공개	비공개	574비	공개	5139
다트머스	5.41%	3.93%	1104	28106	17.07%	52.70%	3550	606	1150	31656	1710
하버드	3.49%	2.71%	1245	46087	8.74%	n/a*	7921	692	1665	54008	1937
유펜	5.38%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n/a*	비공개	비공개	2400	65235	3508
프린스턴	4.62%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n/a*	비공개	비공개	1400	40468	1868
예일	3.73%	3.73%	1437	49609	9.02%	n/a*	7856	709	1554	57465	2146



다트머스 합격률 5.41%로 역대 최저

하버드 조기 지원자 83% 디피 받아

프린스턴엔 아시아계가 23.8% 등록

의 93%가 고교 상위 10% 출신이다.

◆**하버드(Harvard)**=조기 전형(얼리 액션)에 7921명이 지원해 692명이 합격했다. 조기 전형 합격률은 8.74%로 지난 4년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버드가 겪었던 일련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기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83.06%가 디피를, 7.7%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40명은 지원을 취소했다.

조기 전형의 692명 이외 정기 전형에서는 1245명이 합격해 총 1937명이 합격 통보를 받았다. 전체 합격률은 3.49%로 2020학년도 4.9% 이후로 가장 높은 합격률이다. 지난해 하버드 지원자는 5만4008명인데 이는202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지원자 숫자다. 2024년 가을 학기 신입생 조기 전형 합격자중 유학생은 15%를 차지하며, 전년도 14.1%보다 약간 증가한 수치다. 조기 합격자중 15%는 1세대 합격자로 전년도 12%보다 증가한 수치다.

유학생 합격자는 전 세계 94개국 출신이고 캐나다(78명), 영국(42명), 중국(24명), 한국(21명), 독일(20명), 이

탈리아(18명), 브라질(18명), 인도(15명), 멕시코(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의 53.1%가 여성으로, 7년 연속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유펜(University of Pennsylvania)**=조기 전형(얼리디시전)을 통해 8500명이 지원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500명이 증가한 수치다. 유펜도 합격자수와 조기 전형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전체 지원자는 6만5235명으로 전년도에 세운 역대 최고인 5만9465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3508명(5.4%)이 합격했다. 조기 전형 합격자는 41개 주 출신이고 유학생은 전 세계 68개국에서 왔다. 57%는 자신을 유색인종 학생이라고 밝혔지만, 아시아계 미국인을 포함한 소수 민족은 23%를 차지했다. 53%는 여성이었다. 표준 시험 점수를 제출한 지원자의 경우 ACT 점수 중간 50%는 34~36점이었고, SAT 점수 중간 50%는 1510~1560점이었다.

◆**프린스턴(Princeton)**=2024년 가을 학기 지원자는 4만468명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다. 지원자 중 2만

563명이 남성이고 1만9883명이 여성이었다. 이중 9960명은 다른 나라 출신이었다. 지원자 중 1868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중 남성은 903명, 여성은 965명, 유학생은 217명이다.

합격자 1868명 중 1411명이 등록하여 등록률이 75.43%가 됐다. 이는 전년도 76.66%보다 약간 낮은 수치다. 등록을 결정한 학생 중 694명은 남성이었고, 717명은 여성이었다. 유학생은 169명이었다. 등록한 유학생은 전 세계 56개국 출신이다. 동문 자녀 레거시 등록자는 11.2%이고 저소득층은 21.7%이 등록했다. 1세대 등록자는 16.3%다.

2024년 가을학기 인구 통계 데이터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은 등록자 중 23.8%를 차지하며, 전년도 26%에서 2% 이상 감소했다. 흑인 비율은 8.9%로 전년도 9.0%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됐다. 라틴계 등록률은 전년도 10%에서 1% 감소한 반면, 다인종 그룹은 7.2%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됐다.

◆**예일 (Yale University)**=조기 전형에서 7856명의 지원자 중에서 709명의 학생에게 합격증을 전달했다. 7856명 지원자는 역대 2번째 많은 숫자다. 이전에는 2021년 가을학기에 지원한 7939명이 최고치였다. 덕분에 조기 전형 합격률은 역대 최저인 9.02%였다. 퀘스트브리지 합격생은 72명이었다.

조기 전형 결과 불합격한 비율은 70%이고 20%는 디피됐으며 1%는 지원 철회했다. 정기 전형에서는 4만9609명 중에서 1437명이 합격했다. 정기 전형 지원자 수는 전년도의 4만4506명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정기 전형 합격률은 2.9%로 대학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합격자는 2146명이다. 이들은 5만7465명 중에서 뽑힌 것으로 전년도 5만225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전체 합격률은 3.73%로 전년도의 역대 최저인 4.34%를 능가했다.

장병희 기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경력 50년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VA, MD, DC 면허 소지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정설침구혈위대전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강화,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당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버지니아
오피스

(Eng/Kor)

(구원뿔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부산, 아시아 음악의 별 될 것”

정명훈 클래식 부산 예술감독
6월 부산 첫 클래식 콘서트홀 개관
“베토벤 합창 연주, 세계인 모을 것”
조성진·런던필·손열음 공연 예정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 훌륭한 나라가 되어 한다. 그러려면 돈만 가지고는 어렵다. 문화 예술이 발전해야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지휘자 정명훈(72)이 17일 부산 연지동의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정명훈은 6월 개관 예정인 부산콘서트홀을 운영하는 클래식 부산의 예술감독을 맡았다. 클래식 부산은 2027년 문을 여는 부산 오페라하우스도 운영한다. 그는 “부산이 아시아에서 음악의 특별한 별이자 미팅 포인트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6월 20·21일 개관 공연에서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을 지휘할 예정인 정명훈은 음악의 힘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클래식 음악은 뿌리가 깊고 역사가 길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을 힘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베토벤의 ‘합창’은 마지막 악장에 전 세계 사람을 모이게 하는 가사가 나온다. 특별한 힘이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이 곡을 부산콘서트홀의 첫 연주곡으로 선택했다.”

정명훈은 아시아 연주자들의 연합



클래식 부산의 예술감독을 맡은 정명훈의 뒤로 보이는 부산콘서트홀 파이프 오르간은 독일산이며 사업비 30억원이 쓰인 악기다. [뉴시스]

오케스트라인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 소프라노 황수미, 부울경 합창단 등과 함께 이 곡을 연주한다. APO는 1997년 창단한 오케스트라로, 부산콘서트홀의 개관과 함께 멤버를 정비하고 이 공연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2012년부터 설립이 추진된 부산콘서트홀은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파이프수 4406개의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고 대극장 2011석으로 개관한다. 부산시민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공연장은 포도밭 모양의 무대를 객석이 감싸고 있는 빈야드 스타일로 설계

했다. 여기에 400석 규모의 소공연장도 갖췄다.

클래식 부산의 박민정 대표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가장 큰 극장”이라고 소개했다. 또 “해외 오케스트라의 한국 공연에서 부산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산콘서트홀의 개관으로 부산 공연을 추가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한국 공연에 이어 일본·중국으로 동선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개관 기념 페스티벌에는 정명훈을 비롯해 대형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독주회(6월 22일), 선우예권과 APO의 실내악 무대

(6월 23일), 조재혁의 오르간 리사이틀(6월 24일)에 이어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손열음(10월 17일), 지휘자 클라우스 마켈레와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11월 9일) 공연이 예정돼 있다.

청중의 확보가 새 공연장의 숙제다. 클래식 부산에 따르면 현재 부산의 공연장 수는 서울의 3분의 1, 전국 평균의 2분의 1 수준이다. 정명훈 지휘자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콘서트홀에 자주 오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하고,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정 기자

시사이일본어

야리나오시 (やり直し)

요즘 일본에서 가장 큰 이슈는 후지TV 성상납 의혹이다. 국민적 아이돌 SMAP 출신 나카이 마사히로와 여성 아나운서 사이의 ‘트러블’이 계기가 됐는데 개인적인 트러블이 아니라 후지TV의 관여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나카이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고 광고가 줄줄이 끊긴 후지TV는 사장과 회장이 사임했다.

특히 1월 27일에 열린 ‘야리나오시 회견’이 주목받았다. 이례적인 10시간을 넘는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이다. ‘야리나오시’는 사전적으로는 ‘다시 고쳐하기’라는 뜻이다.

먼저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참가 매체를 제한하는 등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대한 비판으로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4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참가했다.

나카이는 여성 아나운서와 ‘트러블’이 생겨 여성에게 9000만 엔을 지불했다고 보도됐다. ‘트러블’의 내용은 성폭행이다. 일본에서 ‘트러블’이라고 신중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트러블’이라는 말로는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이 전달이 안 된다. 한국에서는 ‘성상납 의혹’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나는 방송 담당 기자였던 선배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처음부터 개인적 트러블이 아니라 후지TV가 관여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여성 선배는 후지TV의 회식 자리에 불려서 갔다가 장소가 개인 집이었고 거기엔 후지TV 직원 남성 1명만 있었다고 한다. 도망쳐서 피해는 없었지만 위험한 상황이었다. 회사 차원에서 항의했다고 한다. 남성 선배는 후지TV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 부를까요”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성상납까진 아니더라도 출연자나 기자를 접대하는 자리에 아나운서를 부르는 일은 있었던 것 같다.

안타까운 것은 후지TV가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적 받은 후였다는 점이다. 후지TV의 주주인 미국 펀드가 후지TV에게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2023년에 드러난 자니 키타가와와의 성착취 문제도 영국 BBC가 다큐멘터리 ‘포식자: J-POP의 비밀 스캔들’을 공개하면서 공론화됐다. 자니 키타가와와 일본의 기획사 자니스사무소의 설립자이며 일본 연예계의 ‘대부’ 같은 존재였다.

한국에서는 2018년에 #미투 운동이 퍼졌지만 일본에서는 뒤늦게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모양이다.



황원목의 과학 산책

꿈

1616년 11월 어느 날,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1596~1650)가 군대에 있었을 때의 일이다. 도나우 강 둑 위의 야영 막사에서 잠을 자다 한 편의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 오늘날 흔히 쓰는 좌표의 개념을 얻었다고 한다. 마침내 도형이 하나의 식으로 바뀐 것이다. 믿기지 않는다. 꿈속에서 꾸는 꿈이 아닐는지... 원은 평면에서 한 점에 이르는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다. 동그라미가 원의 표상이다. 그런데 원을 그릴 수가 없다. 왜? 아무리 정성스럽게 원을 그려봐도 자세히 보면 거리가 모

두 일정할 리가 없다. 옛날 사람들도 원의 존재에 대해 꽤 고민이 깊었던 모양이다. 머릿속으로는 그려지는데 그 존재를 확인할 길이 막연했으니. 어쩔 수 없었을까.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는 그냥 원이 존재한다고 약속하자 했다. 이런 것을 공리라 부른다. 그런데 데카르트의 꿈이후 갑자기 식을 적어 놓고 원이라 한다. 식을 아무리 뜯어봐도 동그라미는 없다. 이것이 추상의 묘미다. 원을 식으로 표현하니 그동안 몰랐던 원의 다양한 성질들이 드러났다. 그의 꿈 덕분에 이제는 심지어 4차원 시공간과 시간의 주름 속



을 마음껏 헤엄쳐 다니기까지 한다.

꿈은 중의적이다. 꿈을 가지라 하더니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 과학의 속마음도 이중적이다. 그러나 과학이 꾸는 꿈은 꿈속의 꿈인지, 현실 속 꿈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요한 베르누

이의 ‘2학년의 꿈’이라는 별명이 붙은 식이 있다. 어려운 적분을 계산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합으로 바꾸어 놓은 식이다.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은근히 요행을 바란다. 정말 맞을까? 그렇다고 하기에 식이 너무 아름다워 꿈속의 꿈이려니 한다.

그런데 놀랄게도 이 꿈은 참이다. 2학년 학생들의 환호성이 들린다. 우리도 데카르트의 꿈! 미해결 난제를 풀다 보면 종종 꿈속에서 허우적대며 문제를 풀 때가 있다. 물론 다 허사다. 데카르트의 꿈은 그저 꿈에 불과. 그래도 늘 꿈을 꾸다. 그게 과학자의 숙명이려니.

고등과학원 HCMC 석학교수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2월 HOT 리스팅

패어팩스 타운홈
방3, 학2.5
\$590,000

에난데일 새 타운홈
방4, 학3.5, 차고2
\$980,000

패어팩스 타운홈
방3, 학2+2, 차고1
\$750,000

패어팩스 싱글홈
방4, 학2.5, 차고2
\$825,000

센터빌 타운홈
방3, 학2.5, 차고1
\$590,000

매매
센터빌 타운홈
방3, 학2, 차고2
한인마데에서 5분거리
\$625,000

임대
비엔나
켈로스 로드 콘도
방2, 학2, 차고2
\$2,55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심원장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호프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703-259-5617, 410-241-2520



재정보조 액수



줄리 김
탐에듀피아 대표

질문:재정보조를 더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정보조를 더 받기 위해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편법을 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금물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중 적어도 3분의 1은 verification 절차를 통해 학생이 보고한 내용이 맞는 지 서류를 가지고 확인한다.

그리고 폼사 양식에는 분명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 폼사에 보고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이어야 하고 학교, 주정부, 혹은 교육국에서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받은 재정 보조는 도로 물려내야 하며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재정 보조 액수를 늘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부모가 학교에 다닌다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학교에 등록되어 있다는 증명뿐 아니라 학비를 낸 영수증까지 내라고 함으로써 거짓을 밝혀내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을 했다면 법적인 증명을 내라고 하는 학교도 늘고 있

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어찌하든 재정보조를 더 받으려고 온갖 수를 쓰는 부모들과 거기에 대응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학교들의 대응책이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면서 재정보조 액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방법이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계획하고 몇 년간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다.

첫 째, base year 동안의 수입을 최소화한다.

지금 부터 대학 입학 을 준비해야 하는 올 가을에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2026~2027학년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 10월에 오픈 되는 CSS Profile과 12월에 오픈되는 폼사를 해야 한다. 2024년 텍스보고로 폼사와 CSS를 해야함으로 base year는 2024년이 되는 것이다. 2024년 텍스보고는 이미 시작을 한 상태이어서 2024년 텍스보고 하기 전 10학년때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을에 1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2025년 텍스보고로 재정보조를 받게 되므로 2025년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모

의 조정 후 총소득, 즉 AGI(Adjusted Gross Income) 가 보통 \$50,000 이하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 2025년에 자본 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주식을 팔려면 아이가 9학년일때 파는 것이 좋다. 혹시 은퇴 연금이 있다고 그것을 빼서 학비를 낼 생각을 하지 말라. 그것도 수입으로 잡혀서 다음해의 재정보조 액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혹시 부모가 학교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이 적기이다. 가족내에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많을 수록 그 경비를 수입에서 제외하고 보기 때문이다.

EFC 가 낮아지고 결국 더 많은 재정

보조를 받게 된다. 이 방법은 단지 재정 보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원래 그런 계획이 있던 부모라면 시기적으로 이 때 하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혹시 아이의 이름으로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으면 그것부터 빨리 지출 해서 없애라. 부모가 사업을 한다면, 그 중에서도 C corporation 이라면, 가족의 봉급을 낮춤으로서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둘 째, “해당”자산을 줄인다.

보통 APA(asset protection allowance)라고 하여 부모의 나이에 따라 다르고 매년 달라지긴 하지만 부모의 자산 중 만불 내지 5만불 정도는 재정보조 산출에 있어서 제외 되므로 무조건 자산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 자산에는 두가지가 있다.

재정 보조액 산출 시 계산되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이다. 재정 보조액수에 영향을 주는 자산을 그렇지 않은 자산으로 옮기는 것이 방법이다. 자녀가 절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의 이름으로는 아무 것도 저축하지 말라. 만일 자녀 앞으로 학자금 저축을 해

서 20,000불을 적립하려고 한다면 아이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부모의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재정 보조를 받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불리하다. 이미 아이의 이름으로 학자금 펀드를 적립한 것이 있다고 하자.

첫 해 재정보조 패키지를 받아보니 2000불만 무상 보조이고 7000불이 융자이다.

그런 경우 융자를 하는 대신에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학자금 펀드를 빨리 써 버림으로써 다음 해의 재정 보조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family business를 하는 경우 학생의 이름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 또한 대학 진학하는 학생의 동생이 있다면 그 아이 이름으로 있는 자산은 재정 보조액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을 그 아이 이름으로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곧 대학을 갈 연령이라면 그 자산이 재정보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터울이 좀 큰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문의) 703-576-7803,

▶ 1면 '대입 컨설팅'에서 이어집니다

13.유넌=바이오공학, 컴퓨터·정보과학, 전기·시스템공학 등 6개의 박사 학위와 바이오 테크놀로지, 컴퓨터 그래픽 및 게임 테크놀로지, 데이터 사이언스, 로보틱스 등 15가지 석사 과정을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학위 과정으로는 컴퓨터·정보기술, 인공지능 공학, 데이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석사 과정 등이 있다.

14.코넬=항공우주, 지질과학, 생의공학, 화학공학 등을 포함한 15개의 공학 석사 과정을 제공한다. 산학 협력을 통해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15.미시간 주립 앤아버=통합 프로그램 통해 예술·공학, 사용자 중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형 학습과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CataLIST: Ladies in Science & Technology, CS KickStart 등 150개 이상의 동아리가 있다.

16.조지메이슨=20개 이상의 대학원 과정을 제공한다. 생물통계학, 디지털 포렌식,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 석사 학위와 생체공학, 전기·컴퓨터공학, 통계학 분야 박사 학위 등이 있다. 12개 분야의 대학원 자격증도 제공하며, 응용 사이버보안, 정보과학, 소형 위성 공학 등이 있다.

17.워싱턴 주립=보잉 제작 본부가 인근에 있는 워싱턴 주립 공과대학의 항공 우주 관련 교육은 1918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항공 우주공학 및 우주 항공공학 석사 학위,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제공한다.

18.텍사스 A&M 칼리지 스테이션=



인공지능, 자율주행·로보틱스, 인프라, 우주공학 분야 등 다양한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학생이 대학원 조교나 펠로십을 통해 학비를 충

당하며, 펠로십은 학교나 전문 협회, 사립 재단, 비영리 단체 등 외부 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다.

19.노스캐롤라이나 주립=21가지

석사 학위와 13가지 박사 학위, 16가지 온라인 대학원 자격증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과정으로는 항공우주공학, 생물 제조, 나노공학, 섬유공학 등이 있으며, 대학원 자격증 과정으로는 5G 기술,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 나노바이오 테크놀로지, 성능 기반 지진공학 등이 있다.

20.UC버클리=전체 숫자는 2658명인데 여성은 937명이었다. 공대 순위는 3위다. 응용과학·기술, 생명공학, 원자력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제공할 뿐 아니라, 졸업 후 바로 공학 리더로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전문 석사 학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생들은 분석디자인, 개발공학 등 폭넓은 분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장병희 기자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촌 길 건너편)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2월 스페셜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供辰丹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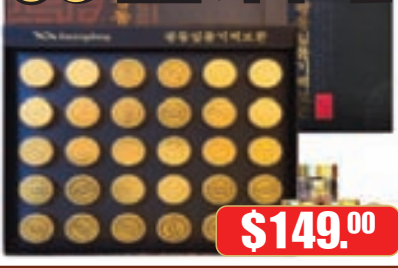


귀하디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대박 SALE \$480 \$250.0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을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에스터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콜라겐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
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짜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장발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징크크린 정

가장성 뇌기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심장질환에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100% 홍삼즙 60포/30포



기력회복 / 면역력증진 / 만성피로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3+1 스페셜 그린 프로폴리스



세종 관절보강



만성기침, 가래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명인 용융 자죽염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는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글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알에
글루타치온
387mg 함유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백작하게~
엘라스틴으로
찰랑하게~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옥마놀한
제도아리 / 재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부티 콜라겐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창극공연 빈자리 없다...MZ들의 티켓 파워

MZ, 전통문화에 빠지다

국립창극단 작년 객석 점유율 93%
배우 김준수·김수인은 강성 팬덤
창극·국악·판소리·한국무용 확대
“전통 즐기는 게 나만의 멋으로”

지난달 30일 ‘마당놀이 모듬전’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하늘극장으로 120개의 다과세트와 아이스티가 도착했다. 국립창극단 배우 팬카페 ‘준수한소리’ 회원 50여 명이 약 200만원을 자발적으로 모금해 만든 ‘서포트’ 회비로 마당놀이 공연에 출연하는 김준수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 ‘서포트’란 팬들이 돈을 모아 옥외 광고를 산거나 스타에게 생일 선물, 커피차 등을 보내는 것을 뜻한다.

국립창극단 김수인 배우의 팬카페 ‘수인노정기’ 회원 이정연(30)씨는 지난해 9월 13일 김수인 배우의 생일에 맞춰 마포구 연남동의 한 카페를 3일 동안 빌려 ‘생일 카페’로 꾸몄다. 생일 카페는 스타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팬들이 자발적으로 공간을 대관해 오픈하는 일일 카페. 이씨는 “다른 팬들과 김수인 배우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했다.

지난 6일 저녁 전통 음악극 ‘광대’가 열리고 있는 국립정동극장에서 만난 김은남(30)씨는 공연을 기다리며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드라마 ‘정년이’에도 새타령이 나오지만, 현장에서 듣는 건 차원이 다르다”면서다. 이날 공연이 ‘자돌’(두 번째 관람)이라는 그는 “2022년 뮤지컬 서편제로 판소리를 좋아하게 됐고 그 후로 소리에 관심이 생겨 국립창극단에 ‘입덕’했다”며 ‘광대’ 중에선 ‘화관무, 아박무 등 춤 장면을 특히 좋아한다”고 했다.

최근 국악·창극·한국무용 등 전통 예술 공연을 이끄는 것은 MZ의 티켓 파워다. 국립창극단이 지난해 공연을 올린 7개 작품의 객석 평균 점유율은



1 국가무형유산 ‘배뱅이굿’을 음악극 형식으로 꾸민 ‘왓소! 배뱅’. 2 웹툰 원작을 무대로 올린 국립창극단의 ‘정년이’. 3 국립창극단 김준수 배우 팬들이 공연장에 보낸 커피차. 4 지난해 12월 김준수가 판소리 ‘수궁가’를 완창하는 모습.

[사진 국립국악원·국립창극단·국립극장·김준수 인스타그램]

93%. 2010년대 초반 10% 남짓이었던 창극단의 2030 관객 비율은 꾸준히 우상향해 2024년에는 30%에 이르렀다.

특히 국립창극단은 아이돌 못지않은 강성 팬덤을 자랑한다. 전화차 ‘회전문’(재관람)을 도는 고정 관객이 있을 정도다. 공연 때마다 팬클럽의 커피차 ‘조공’을 받는 김준수·김수인 등 스타 배우들이 무대에 오르는 날이면 아이돌 팬미팅처럼 ‘대포 카메라’를 든 팬들이 해오름극장 로비에 진을 친다. 한 국립극장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창극단 공연 캐스팅 발표가 늦어지자 국민신문고에 항의가 올라오는 일도 있었다”며 “창극 ‘리어’의 영어자막 중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대문자 소문자 표기가 뒤바뀐 부분을 일일이 찾아 바꿔 달라고 건의한 팬도 있다”고 했다.

MZ 세대에서 한국 전통문화가 ‘합

하게 받아들여지는 ‘힙트레디션’ 열풍은 극장 통계로도 감지된다. 지난해 11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게임 음악 콘서트 ‘음악 오디세이 천하제일상’의 2030 예매율은 80%에 육박했다. 사전예매를 완료한 후 현장에서 추가 입장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야외 콘서트 ‘애주가’ 공연(지난해 6월) 예매자 중 44%가 2030이었다. 국립국악원이 지난해 9월 선보인 소리극 ‘왓소! 배뱅’은 30대 관객 비율이 전체 50%에 육박하며 예매 오픈 이틀 만에 전석이 매진됐고, 인기

합입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연 5회의 앵콜 공연을 열었다. 인기 장르도 다양해졌다. 정선영 국립극장 피디는 “연극·뮤지컬과 장르적으로 유사한 창극으로 입문해 정통 판소리나 한국무용 공연 관람으로 이어지는 예매 패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힙트레디션’ 열풍에는 K컬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으로 촉발된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 K팝의 근원으로 판소리 등 전통 소리를 재해석하는 움직임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국극을 소재로 한 드라마 ‘정년이’, 무용수 경연대회 ‘스테이지파이터’ 등 미디어를 통해 전통 예술이 노출되면서 ‘독특한 취향’을 추구하는 젊은층의 트렌드와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립국악원 이승재 관객개발팀장은 “전통을 즐기는 것이 2030들에게 ‘나만 아는 멋’으로 어필하는 분위기”라며 “요즘 국악 공연엔 혼자 온 젊은 관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타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관객들에게 다가가려는 전통문화계의 노력도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지난해 6월 초연한 국립창극단 신작 ‘단신: 페이퍼 사만’은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을 연출 겸 음악감독으로 스카웃해 만든 작품이다.

지난해 5월 오픈 1분 만에 매진된 김준수 콘서트 ‘창(唱) : 꿈꾸다’는 전통 판소리로 시작해 발라드, 록 반주에 어우러지는 창까지 장르를 허무는 음악으로 90분을 채웠다. 김준수는 이런 시도에 대해 “국악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소리의 매력을 알리고 대중과의 간극을 줄이는 소리꾼이 되고 싶다”고 했다. 다만 아직은 소수 스타를 중심으로 한 인물 팬덤에 그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김도헌 음악평론가는 “여전히 일반 대중은 이름이 알려진 스타의 작품에 기대 국악 등 전통문화를 접하는 상황”이라며 “현대 장르와 적극적으로 융합해 친근하고 익숙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지유·최혜리 기자



4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바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2월

구인

광고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라이센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금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채틀리 VA

- ▶ 연매상 100만+25만
- ▶ 급하게 처리원함
-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딕크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즐거운 건강복지센터에서 주방장, 주방보조, RN 간호사, 리셉셔니스트, 액티비티 선생님을 구합니다. 볼티모어 메릴랜드지역
410-916-6362

메릴랜드 주 로코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풀/파트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험자
443-310-9247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티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쉬) 가능한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콧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티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화장품홀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볼티모어 케이스톤스빌 지역 베이글샵에서 주 3-4일 7시-3시까지 도와주실분 연락주세요
443-797-3938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버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8:00 PM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엘리콧시티 장수 설령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쉬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콧시티
410-926-32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는분 구합니다.
301-926-3638
301-538-4246(Soo)

▶▶MD 아를델밀 사평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싱글/타운방 렌트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 마트 근처 싱글홀 욕실 딸린 이중 큰방, 반지하방 (출입문 별도) 주방, 욕실, 인터넷, 가구 완비
301-538-1438

엘리콧시티 싱글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 방2개, 큰부엌, 화장실, 세탁기, 인터넷 완비
443-355-6767

볼티모어 오잉스밀스 좋은 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하나 렌트 유로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버튼스빌 엘리카스티 롯데마트에서 18분 거리 방 2개, 화장실 1개 반, 부엌 리빙룸, 밖에 텍 있음, 넓은 주차장, 1700불 아래층 방하나, 부엌 화장실, 출입문 별도, 800불
443-983-8100

지하방 렌트 워크아웃 인터넷 유로 가구일체 교통편리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443-631-7866

우드스탁 반 지하 단독. 화장실. 침대. 출입문 별도. 금연. MD
443-983-1880

저먼타운 방1 욕실 별도, 금연자 깨끗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콧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홀 2층방/유로/가구일체/교통편리/인터넷 완비
443-631-7866

▶▶엘리콧시티 타운홀 렌트 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꿔진 집. 롯데/한아름 5분 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홀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가 가까움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홀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홀, 큰방, 욕실, 유로,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중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 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 별도. 부엌, 욕실, 거실 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 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사업체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언트 옆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 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매릴랜드 엘리콧시티에서 20분 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를 리모델링/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Tutor (College-Prep): Collaborate with students, parents, or counselors to assist student's progress. Assist students in solving quizzes in high school level science and math. Advise students about college skills of study, note-taking, test-taking, and writings with purpose to use through college classes. Position reports to the employer but may telecommute from anywhere in the U.S. 40 hours/week. Associate degree in a science or mathematics engineering field or equivalent require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Place:
Holistic College Consulting, LLC at 14057 Sunrise Valley Dr., Herndon, VA 20171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하실 서버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하실 셰프/부주방장을 구합니다.
hr@seoulprime.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맥클린 한국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단한 영어 가능하신분
571-235-8997, 703-505-5760

내니 급구 알렉산드리아/스프링필드에서 8개월 여아 풀타임 내니 구합니다
M-F(9-5pm)
856-304-1907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파트/풀타임 직원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 근무 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스마트보험 Contracting/Recruiting Specialist, Life&Annuity Specialist(W2) 신입/경력모집
- Life&Annuity Specialist: Life Agent 유경험자 우대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 Visa 및 영주권 스폰서 가능
지원: smartagent@solomonus.com
703-639-0882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티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공인 회계사무실(Annandale)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티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최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게재, 내용 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중앙일보**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홀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홀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철텔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철텔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당/식품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험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물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현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서 풀
타임 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레스 / 쿡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금,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
703-907-9541

철텔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일
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 픽업스토어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로튼 세탁소 파트/풀타임 카운터 보실
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깅 하실 분/
파/풀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깅, 프레스,
빨래 /파타임 또는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스톨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정비 메케닉 유경험자
구함
571-332-6110

포드 강통벤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철텔리 자동차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헬
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청소/기타구인

버크 테컨도 사범님 구합니다.
\$50K-\$55K 풀타임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센터빌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
▶571-591-4455

VA 스프링필드 /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980-1917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전공
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트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맡아서해주시분
703-473 -6022.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엘리콧시티 픽업
풀 or 파트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애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 마일). 3층,
7 베드룸과 7 베스 전체 7500+sf 의 아름다
운 집!.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싱글홀 지하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쉬어,
66번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홀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홀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애난데일 콘도 렌트\$1,800 방1, 화1
세탁기, 전부 리모델링 ,마루,
환한 3층 1,000sqft
2.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3.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
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근처콘도
방2, 욕실 1.5, 깨끗하고 위치 좋음
\$2200 2월부터 입주가능
301-466-1646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콘도
방1, 욕실 1, 주차1 남자분만
571-224-8585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가움. 교통편리.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가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렌트 방2화1
부엌 화장실 마루 모두 새것 \$1,950
(818)370-3477

방렌트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홀 2층 방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스프링필드 타운홀 2층 작은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센터빌 롯데에서 가까운 타운홈 잠만 주무실
여자분
703-581-2631

애난데일 지역 싱글홀, 방1개 렌트
▶703-470-5238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광고 한달유료게재, 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C11

에난데일 예촌앞 타운홈 방렌트,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가능
703-622-2033

에난데일 H마트옆 방하나 화장실하나, 직장
인환영, 남녀불문, 즉시 입주가능 \$800
703-350-1986

센터빌 CVS 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방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에난데일 H마트 근처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조지메이슨근처 안전하고 조용한
싱글홈 반지하방/부엌/세탁기/냉장고/가구
완비/인터넷/출입문별도
703-350-2278

센터빌 스톤로즈 방 렌트
\$650 유틸포함
703- 474- 9713

에난데일 K마트뒤 싱글하우스
방하나렌트 주차넵
703-965-2343

챈틀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새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에난데일 고급 주택 내의 단독 화장실 딸린 큰
방 렌트. DC 까지 7 마일.
집 앞에 버스 스타프 있음
703-244-3453

센터빌 유포, 세탁기, 취사가가능. 아침부터 저
녁 8까지비어있음. 넓고 햇빛 잘들고 깨끗함.
작은방, 큰방 입주가능. 여자분만.
571-664-9905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 지하 방1/ 화실 / 샤워/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에난데일 H 마트 근처 타운홈
인터넷, 가구/냉장고/욕실별도/
직장인/금연자 환영
571-230-7121
301-633-4232

▶▶지하방1/워아웃/샤워/
간단취사가가능/여자/커피 환영/
패아팩스 머릴필드지역
571-229-7124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 마
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아난데일 아파트/한강뒤/여자분
원함 /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함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
통 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접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아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사무실/점포 렌트

센터빌 던킨뒤 오피스 콘도 렌트 - 2층
룸 3개/ 오픈 스페이스/파킹다수 \$1,900
▶571-239-6054

에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로)

에난데일 사무실 콘도 렌트 800sq
571-237-3411

부동산 매매

챈틀리 End Unit 벽돌 타운하우스
\$779,000 방3, 화장실 3.5,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자인언트 몰 앞
▶571-239-6054

1. Coming Soon 에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주택, 방4, 화4,
편리한 렘블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 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사업체 매매

식당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챈틀리 VA
연매상 100만+25만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급매 (매매가격:\$59,000)
혼자 할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 정확한 매출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핑몰,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옹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중고매매/기타

부동산 전문가가 되세요. 뉴스타 부동산
학교 개강
2월11일(화) 저녁 6시, 기간: 6주
비용: \$295 + \$100 (교재)
문의: 703-496-4989

귀국으로 가구등 생활용품 일체 싸게 팝니다.
센터빌 703-626-7370 최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날)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 오딧세이 미니밴 2007
26만 마일 뉴타이어 상태 \$3,000
571- 814-8773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
고, 소중한 우표들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귀국 관계로 가사일체를 헐값이나 무료
로 드립니다. 허백련, 청전등 고미술품과 돌침
대 가재 도구 다수의 그림과 수백권의 책 무료
로 드립니다
443-799-2124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수학개인과와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
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
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
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inyeolchoi@hotmail.com
703-946-4969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
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차없으신분 라
이드 가능
703-939-2737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 ea
Mix machine 1ea, 반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 MD 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
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
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
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페인팅(In,Out),텍메인
터년스와 클리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니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텍,
그외외도공사,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타텍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Carrier, Trane달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
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냉동,냉장,전기,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K18,K14,K10,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팀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시, 파워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키친 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셔, Disposals,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
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선택, 확실한만족,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 시내 이사,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 20년 전문
귀국이사,포장이사,타주,시내이사,자체창고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벌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월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세스메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디자인
방정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적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 / 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재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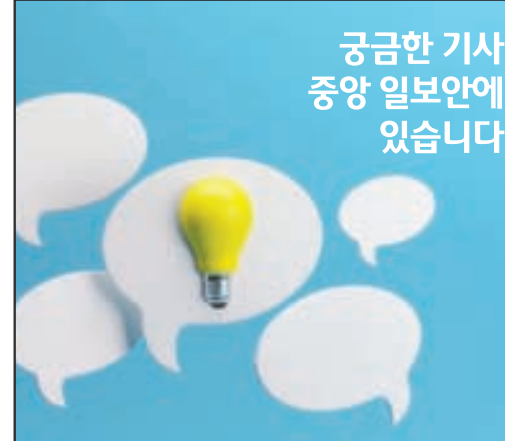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① 위성탄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레너

•웨딩드레스 & 텍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씽펄프 교체

◆루핑수리/거터교체

◆사이드 리페어/창문

◆데크 수리

◆드라이얼/페인트

◆파워워시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수리

케리아웃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정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탄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페어팩스에 위치한 전문 상담기관

한국어 & 영어 개인상담 /
부부상담 / 부모상담 / 심리검사 제공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CareFirst 보험 In-network

Reynolds & Rubino
Psychology Group, LLC

571.396.6574 전화 및
문자 가능

10301 Democracy Lane, Suite 201
Fairfax, VA 22030

rrpsychgroup.com / info@rrpsychgroup.com

임업 벌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put your cards on the table; 계획을 솔직하게 밝히다

Nick and Denny are talking in the office.

(닉과 데니가 사무실에서 얘기하고 있다.)

Nick: Denny do you have a few minutes?

닉: 데니 잠시 시간 있어?

Denny: Sure, What’s on your mind?

데니: 그럼. 뭐 생각하는 게 있어?

Nick: We’ve got a meeting tomorrow to negotiate a contract with a new customer.

닉: 내일 새 고객과 계약을 협상하는 회의가 열려.

Denny: Terrific,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데니: 잘 됐네. 할 얘기가 뭐야?

Nick: We need to decide how we want to conduct our negotiation.

닉: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지 결정해야 되거든.

Denny: Well obviously we should put all of our cards on the table right away.

데니: 글썄. 당연히 처음부터 우리 쪽 제안을 솔직하게 밝혀야지.

Nick: No that would be naive. We’ve got to feel them out to see what their negotiating limits are.

닉: 아니야. 그건 순진해. 그 쪽의 협상 한도가 뭔지 타진을 해야지.

Denny: I see. We need to know what their bottom line is.

데니: 그렇구나. 그쪽의 최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겠네.

Nick: Yeah. Then we’ll know how far we can push them.

닉: 그래. 그래야 그쪽을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파

악이 되지.

Denny: And they will be doing the same thing to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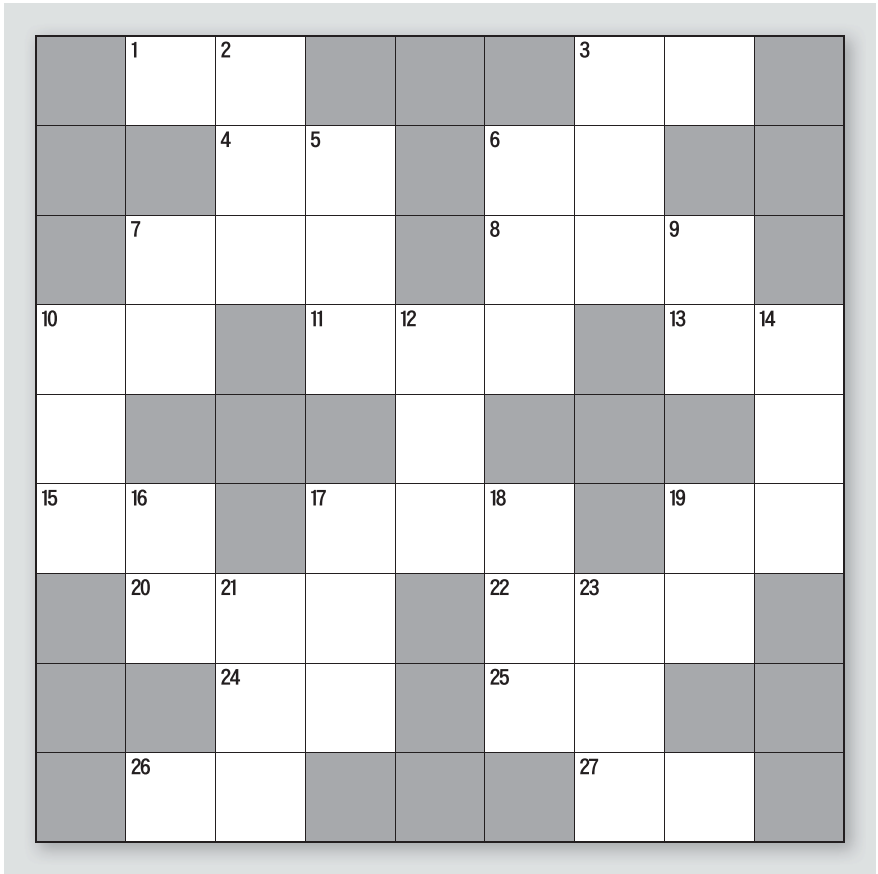
데니: 그러면 그 쪽도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네.

기억할만한 표현

▶ what’s on your mind?: 무슨 생각해요?

“I can usually tell what’s on his mind.”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대개는 맞출 수 있어요.)

낱말퀴즈



가로열쇠

(1)음력 5월 5일. 그네뛰기나 씨름 등의 놀이를 즐기며, 여자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다 (3)도시 속의 개방된 장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죠. 광화문 ~ (4)온갖 복. 낱말퀴즈 애호가 여러분의 댁내에 ~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6)하늘의 한가운데. 해가 ~에 뒹그날 때도 형은 일어날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7)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그린 그림 (8)흐르는 물을 저장하여 물이 필요할 때에 사용하게 하는 수리시설 (10)공중 전기의 방전이 일어나 번쩍이는 불꽃 (11)술을 만들어 도매하는 집 (13)계속해서 많이 내리는 비 (15)집안의 재물이나 재산. 집 안 살림에 쓰이는 일상 용구 (17)악보를 그리기 위한 다섯 개의 선이 그려져 있는 서식 (19)쇠 불이를 녹여 거푸집에 부은 다음, 굳혀서 만든 물건 (20)끝이 뾰족하고 굽은 물건 (22)명태의 새끼 (24)사람의 곁에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들며 보살핌 (25)꿇구멍 속에 낀 때 (26)더러운 곳을 닦거나 흠치는 데 쓰는 형질 (27)키가 6m 정도로 목과 다리가 길다. 아프리카 초원에 떼 지어 산다

세로열쇠

(2)잔뜩 찌푸린 얼굴 (3)비교적 많은 양의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샘물. 미네랄워터 (5)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마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기술. 인형을 가지고 연극을 할 때 하죠 (6)보통의 경우보다 조금싼 상품의 가격 (7)풀과 티끌. 지푸라기. 매우 하찮은 것 (9)손가락의 지문을 도장 대신으로 찍은 것 (10)번성하여 화려한 거리. 도시의 ~는 한밤중에도 불빛으로 환하다 (12)폭약이 터지게 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심지.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 (14)펄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 (16)말을 다루기 위해 말의 입에 가로 물리는, 쇠로 된 물건 (17)집짓 시치미를 떼며 엉뚱하게 단전을 부리는 태도 (18)죽은 사람의 혼이 극락으로 가도록 하는 곳. 찻감굿, 오구굿이라고도 하죠 (19)좌인의 두 다리를 묶고 그 틈에 두 개의 나뭇대를 끼우고 비트는 형벌 (21)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뜻으로 음식을 조금 떼어 던지는 일 (23)정식 혼인을 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는 과부나 이혼녀

스도쿠

7			6	9		4		
9				2	8			
5	6		4	7	1	9		3
	7	2	5	1	3		4	
	4					2	5	8
	9		2			1		
2		9		5				
1			7	4		8		5
4	5	7		3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9	1	6	3	8	7	5	4
5	6	8	2	4	7	9	3	1
4	3	7	9	5	1	6	8	2
7	1	3	4	8	2	5	6	9
8	5	2	7	9	6	1	4	3
6	4	9	3	1	5	2	7	8
3	2	6	1	7	4	8	9	5
9	7	5	8	2	3	4	1	6
1	8	4	5	6	9	3	2	7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2025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5 봄학기 개강 3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상담전화 | 213-272-6031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법학박사'하워드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월드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출생)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애틀랜타

기타 지역

구인

구인

일본식당 구인

알래스카 식당 양식

*히바찌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
(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아침잘 하시는분 우대)
특별우대, 숙식제공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907)545-1451
(907)545-5933

이민생활의 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www.koreadaily.com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지긋한 3차 신경통과 중풍치료로 기적을 경험하다!

“중풍과 3차 신경통,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 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다. 그는 “정말 기적과 같다”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병원에서 두 달간 입원했던 그는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걸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성민 산삼 한방 병원을 찾았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침, 뜸, 약물 치료 등 6단계 치료법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델히노 씨는 치료 후 틀어진 목이 반듯해지고, 통증과 언어 장애가 개선되었으며,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민 산삼 한방 병원은 3차 신경통 치료도 전문으로 한다. 3차 신경통은 얼굴 신경이 손상되거나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 질환으로, 말하거나 씹을 때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서 박사는 “한방 치료를 통해 신경 압박을 해소하고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증상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풍과 3차 신경통 치료의 핵심은 기혈 순환을 돕고 혈전을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히노 고메즈 씨.

제거하는 것이라며, 심혈관 치료를 위한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함께 처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풍 예방을 위해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213) 385-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소매·도매 민물장어 판매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당신도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B3 취업이민

EB-3 비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호텔, 카지노, 닭공장, 생선공장 등]

자격 조건

유학생 포함, 합법 신분 소지자, 학력, 경력 및 영어 성적 무관, 건강하며 범죄기록 없는 자. 누구나 지원 가능.

웹사이트 : www.worldwidecompass.com

전화문의 : 213-788-8376 (엘에이), 470-223-3979 (아틀란타)

이메일 문의 : kseri@worldwidecompass.com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